『4단계 BK21사업』 미래인재양성사업(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팀 자체평가보고서

접수번호	-							
사업 분야	인문학	신청분야	문학	단위	지역	구분	교육연구팀	
학술연구분야 분류코드	구분	관련분야		관련분야		관련분야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한국어와문학						
	비중(%)	100%						
교육연구 팀명	국문)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영문) Education Research Group for Future Scholars and Specialists in Moder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교육연구 팀장	소 속	연세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국어국문학과(부)						
	직 위	교수						
	성명 국문	한수영		전화	033-760-2896			
				팩스				
	성명 영문	SooYeong Han		이동전화				
				E-mail				
연차별 총 사업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9~'21.2)	2차년도 ('21.3~'22.2)	3차년도 ('22.3~'23.2)				
	국고지원금	18,989,004	211,970,000	211,970,000				
총 사업기간	2020.9.1.-2027.8.31.(84개월)							
자체평가 대상기간	2021.9.1.-2022.8.31.(12개월)							

본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4단계 BK21사업』 관련 법령, 귀 재단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평가보고서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작성자	교육연구팀장	한 수 영(인)
확인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김 한 성(인)

목 차

Ⅰ. 교육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 ····· 17
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 17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 18
3.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달성 정도 ····· 20
4. 교육연구팀 차년도 추진계획 ····· 41

Ⅱ. 교육역량 영역 ····· 42
1.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 ····· 43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 50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 58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 61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 63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 64

Ⅲ. 연구역량 영역 ····· 66
1. 참여교수 연구역량 ····· 66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 78
3. 참여교수 연구의 국제화 현황 ····· 80

Ⅳ. 교육연구팀 자체평가 결과 ·····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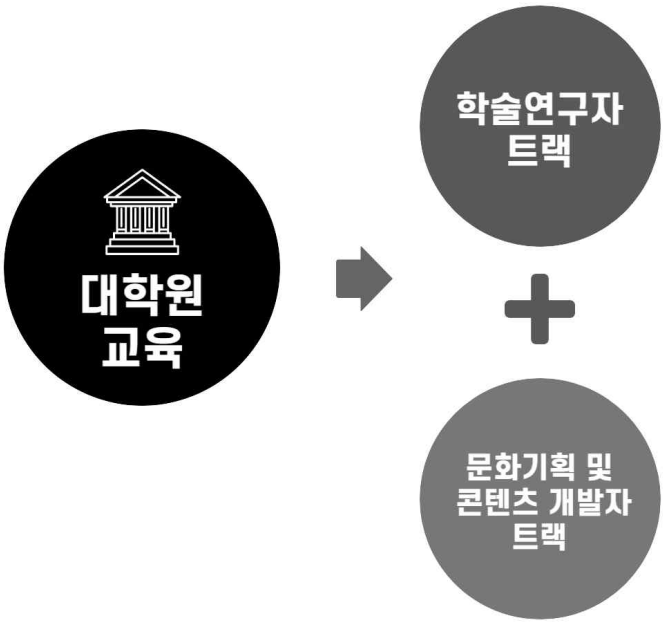
Ⅴ. 증빙자료 ····· 87

<자체평가 보고서 요약문>

<table>
<tr><td rowspan="3">중심어</td><td>근대한국어문학</td><td>MTL
(미디어・텍스트・언어)</td><td>GPS
(국제화・실용화・전문화)</td></tr>
<tr><td>탈경계</td><td>학술연구자 트랙</td><td>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자 트랙</td></tr>
<tr><td>멘토링 시스템</td><td>랩 시스템</td><td>학역(學域) 상생</td></tr>
<tr><td>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달성정도</td><td colspan="3">▣ 본 교육연구팀은 2003년부터 학과 특성화 전략을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로 결정한 이후 ‘근대한국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학과 특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2008년 학부 특성화 프로젝트 <5-10-20> 사업, 2014년 교육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선정을 통해 학과 특성화 성과를 달성했음. 이제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학부 특성화 성과를 대학원 특성화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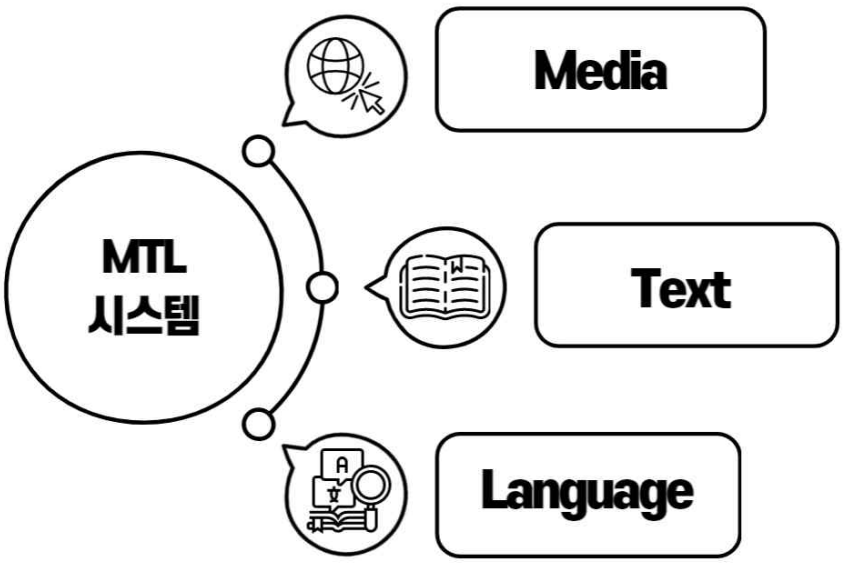
<table>
<tr><td>비전</td><td>근대 한국어문학 교육 및 연구의 세계적 중심</td></tr>
<tr><td>목표</td><td>근대 한국어문학에 기반을 둔 탈경계적 전문가 양성</td></tr>
</table>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 대학원 교육을 학술연구자 트랙, 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자 트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td></tr>
</table>

■ 본 교육연구팀 목표는 GPS(Globalization : 국제화, Practicability : 실용화, Specialization : 전문화) 전략을 통해 달성될 것임.

■ MTL(Media/Text/Language) 시스템 구성 : 고전, 현대, 국어학의 전통적 국어국문학과 교과과정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미디어, 텍스트, 언어를 축으로 하는 시스템임.



■ 대학원 MTL 랩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밀착형 연구지도와 학술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문 학술연구자와 창의적인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함.

▣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위해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MTL 랩 운영을 통한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 학술연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연구영역에서도 계획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한 연구성과물도 도출할 수 있었음.

MTL 시스템	담당 교수	참여대학원생		연구성과물
		2021-2	2022-1	
Media (미디어)	배정상 김성연	최석열	최석열	자료집 출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1건, 대학원 혁신 우수 논문 2022-1학기 단과대학 장려상 수상
Text (텍스트)	한수영 김형태	장기영, 채예람	장기영, 채예람, 이윤조	국내 학술지 논문게재 1건, 대학원 혁신 우수 논문 2022-1학기 단과대학 최우수논문상 선정, 자료집 출간, 국제학술대회 발표 2건
Language (언어)	양정석 고석주 노혜경	정민지, TENG YULONG, TANHONGDA, NIMENGYUAN, 정예은, LIANG JIAMING, LIUYI	정민지, TENG YULONG, LIUYI, TANHONGDA	자료집 작업 중, 대학원 혁신 우수 논문 2022-1학기 단과대학 장려상 수상, 국제학술대회 발표 3건, 토론 1건

▣ 본 교육연구팀의 2차년도(2021년 9월 ~ 2022년 8월) 달성 정도는 다음과 같음.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 - (국제화 : G / 실용화 : P / 전문화 : S)		
전문화 + 국제화	▪ 프론티어 세미나	2021.11.12. <디아스포라 위도 - 남북일 냉전 구조와 월경하는 재일조선인 문학>>
		2022.04.07.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자료와 이야기의 역사>
		2022.05.13. <잔여와 잉여>
전문화 + 국제화	▪ 전문가 특강	2022.01.07. <뉴스룸, 작가입니다?>
		2022.01.13. <방송작가가 되고 싶어?>
		2022.05.19. <다시, 『토지』는 어디에 있는가? 『토지』 연구의 성취와 남은 과제>
		2022.05.27. <세상을 바꾸는 힘, 인문학! - 20대 대선 선거 캠페인을 중심으로>
		2022.06.02. < 영상번역 : 언어와 감각의 장벽, 그 너머를 잇는 힘>
전문화 + 국제화	▪ 전문가 워크숍	2021.12.09. <근현대 도시공간과 한국문학>
		2022.03.24. <아카이브 전시의 형식 탐구>

		2022.03.31. <더 라스트 북스토어>
		2022.05.12. <경험의 체득과 건축 서사>
전문화 + 국제화	▪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참여대학원생 6명 발표, 대학원생 3명 발표, 토론 참여
전문화 + 실용화	▪ 인큐베이팅 세미나	2021.12.29. <육필 원고와 유품은 어떻게 온라인에서 기록되고 전시될까?>
		2022.01.20. <게릴라 아카비스트가 역사를 구한 방법>
		2022.01.27. <초국가적 미디어와 디지털 기억>
		2022.03.23. <Feel the Rhythm of Korea를 통해 본 문화콘텐츠의 성패>
		2022.03.31. < 지역 홍보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실무>
전문화 + 실용화	▪ 해외 한국학자 특강	2022.07.06. <분단과 언어문제 - 북한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문화 + 국제화	▪ 해외 동문교수 멘토링 특강	2021.11.04. <유학생에서 대학교수로의 신분전환>
전문화 + 국제화	▪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참여	4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참여 발표 12명, 토론 12명
전문화	▪ 석학 강좌	HK 사업단과 공동 개최, <바깥에서 사유하기, '정체성'의 속박을 넘어>
산업·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사회연계 인문학 특강		2022.07.07. <신소설과 근대적 여성 주체의 탄생>
		2022.07.14. <한일강제 병합과 소설의 대중화 전략>
		2022.07.21.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
		2022.07.28. <강명화 정사 사건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2022.08.04. <선교사의 문학 번역과 문화번역>
▪ 지역 기업과 MOU 체결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 2022.08.09.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타 프로그램과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 대학원 설명회 및 간담회		2022.03.14., 15, 16. 3일에 걸쳐 대학원 설명회 실시
▪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2021.09.06. / 2022.01.25.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실시
▪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		2022.06.29. 1회 실시 9명 참여
▪ 대학원·학부 연계 소모임		<언어 소모임>, <문예리뷰> 2개 소모임 진행 중

교육역량 영역 성과	▣ 본 교육연구팀은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의 특성화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역량 영역을 강화했음.

▣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 특성화를 위한 신규 교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따라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음.

▪ 기존 교과목 변경 현황

연번	학정번호	기존 교과목명	변경된 교과목명
1	KLL7043	고전문헌연구	근대고전문헌서지연구
2	KLL8002	국문학자료연구	근대미디어자료강독
3	KLL8024	현대서사이론연구	텍스트비평방법론연구
4	KLL7034	문예비평론연구2	근대미디어와문학연구
5	KLL8025	현대소설이론연구 2	한국근대문학과문화기획
6	KLL6131	현대소설연구1	근대영상미디어와문학
7	KLL6151	국어형태론연구1	근대국어형태론연구
8	KLL8012	한국문학사상사연구	한국근대문학사상사
9	KLL9025	시조문학특수연구	한국근대시조문학특수연구
10	KLL7035	현대소설연구2	한국근대대중소설연구
11	KLL9022	1910년대한국문학연구	근대동아시아비교문학연구
12	KLL9021	고전소설연구	고소설과신소설비교연구
13	KLL7041	현대소설이론연구1	한국근대문학과젠더문제
14	KLL9013	외국문학이입사연구	탈식민주의문학비교연구
15	KLL9019	고대시가운율연구	근대시가율격연구
16	KLL8151	한국가요연구	한국가요의전통과근대
17	KLL7121	1910년대한국문학특수연구	동아시아문학의근대담론비교연구
18	KLL9131	문학연구방법론	근대문학사연구방법론
19	KLL7039	시조.가사문학연구	시조・가사문학과근대매체연구
20	KLL7122	현대작가연구1	한국근대작가연구
21	KLL7030	현대소설사연구	근대문학과제도
22	KLL7124	한국한문학의연구	한국근대한문학자료강독

▣ MTL(미디어, 텍스트, 언어) 시스템을 랩실 시스템으로 운영했고, 랩실 별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미디어 랩에서는『한국 근대괴담 자료집』을 출간했으며, 언어 랩에서는 근대 한국어 문학 자료를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순국문-국한문-한문-일문의 텍스트 자료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자료집 발간과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 텍스트 랩에서는『속담과 물명의 세계』를 출간했음. 이와 같은 랩실 별 성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교육역량 영역의 성과는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 학술연구자를 위한 프로그램(전문가 워크숍 3회, 전문가 특강 6회, 프론티어 세미나 3회, 인큐베이팅 세미나 5회 등)을 진행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학업 능력을 함양함.

▣ 1차년도부터 시작한 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전문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도 계속 진행해서 학술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창의적인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부분도 강화했음. 이번에는 건축, 출판, 광고, 선거, 번역,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를 초빙해 문화 콘텐츠 영역의 확대를 시도했음.

▣ 비대면, 대면 방식을 활용한 면담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 언어 랩실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내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꾸준한 논문 작성 지도를 진행하고 있음. 매주 2시간씩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대학원생의 논문작성 능력 및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도 신장하고 있음.

▸ 언어 랩실에서는 2021년도 2학기(2021.09.10.~2022.02.23. / 2021.09.10.~12.20.) 동안 **매주** 금요일 오전(10:00~12:00)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논문 작성법을 지도함.

▸ 언어 랩실에서는 2022년도 1학기(2022.03.11.~2022.07.19.)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10:00~12:00)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논문 작성법을 지도함.

▸ 언어 랩실에서는 2022년도 1학기(2022.03.11.~2022.07.19.)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2:00~5:30)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통사 세미나를 진행함.

기간	교수	참여대학원생	횟수	기타
2021-2학기 (9월 10일 ~ 2월 23일)	양정석	4명	12회	
2021-2학기 (9월 10일 ~ 12월 20일)	고석주	4명	15회	
2022-1학기 (3월 11일 ~ 7월 19일)	양정석	6명	35회	오전 : 논문 작성법 지도 오후 : 한국어 통사론 세미나

▸ 언어 랩실은 상기와 같이 지속적인 논문 지도를 통해 2022 하계 BK21 국제학술대회에 4명의 참여대학원과 대학원생이 발표에 참여했음.

▸ 논문계획서 발표 세미나(2022.02.18.) 진행 :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 논문계획서를 발표하고 참여교수가 참석해 조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외국인 유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한국어' 전공자임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관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임. 본 교육연구팀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으므로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연구역량 영역 성과

▣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역량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했음. 본 교육연구팀의 MTL 시스템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언어 랩실의 참여대학원생은 대학원 강의를 통해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음. 추후 자료집 발간은 개별 연구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함. 본 사업팀이 체계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과 연동해 특정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후 관련 전문가 특강을 통한 연구 심화 과정을 거치고 이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증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시도는 학술지 논문게재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참여대학원생들은 정기적인 세미나 활동을 통해 개인 연구에 관한 교차검증을 거치고 있음. 이러한 시도가 누적되면 향후 많은 개별 연구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은 다음과 같음. 참여교수 7명이 총 8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 3편을 저술했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워킹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해서 연구역량을 가다듬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함.

▣ 연구역량 영역 주요 성과

■ 참여대학원생 성과

1) 국제 학술대회 발표 6건

▸ 정민지, TANHONGDA, TENG YULONG, 채예람, 최석열, 이윤조

2) 학술지 논문게재 1건

▸ 장기영, 「영화 <69세>의 기록의 레이어를 통해 본 재현과 실재의 관계>, 『대중서사연구』 28권 1호.

3) MTL 랩 결과물 도출 : 미디어, 텍스트 랩 자료집 발간, 언어 랩실 자료집 준비 중

▸ 텍스트 랩 : 『속담과 물명의 세계』, 학자원, 2022.07.25.

▸ 미디어 랩 : 『한국 근대 괴담 자료집』, 소명출판, 발간 예정.

4) 2022년 1학기 대학원 혁신 우수 논문 수상 : 최우수 1건, 장려상 2건.

▸ 최우수 : 장기영

▸ 장려상 : 최석열, LIUYI

■ 참여교수 성과

1) 학술지 논문게재 8편

▸ 배정상,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활동과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 : '사회소설' 『단소』와 『죄악의 씨』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9.

▸ 배정상, 「『조선신문』 소재 최찬식 소설 연구」, 『동방학지』 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9.

▸ 양정석, 「한국어 의문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 이론적 접근」, 배달말 69, 배달말학회, 2021.12.

▸ 김성연, 「시인 윤동주의 이동하는 신체와 언어적 실천, 그리고 '디아스포라' 라는 방법론」, 『현대문학의 연구』, 2022.2.

▸ 배정상, 「백야 이상춘의 신소설 연구」, 『한국민족문화』 8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3.

▸ 김성연,「근대 초기 선교사 기록에 담긴 후각 감각을 통해 본 문화번역의 가능성」,『인문과학』, 2022.4.

▸ 배정상,「『조선문단』의 미디어 전략과 문단 권력의 창출」,『인문논총』79집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5.

▸ 노혜경,「현공렴의『일선잡가』연구 - 문화의 번역과 전이」,『동양학』8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2.7.

2) 저서 3편

▸ 배정상,『근대 미디어와 한국문학의 경계』, 소명출판, 2021. 10.

▸ 김형태,『속담과 물명의 세계』, 학자원, 2022. 07. 25.

▸ 양정석,『한국어 의문 구문과 의도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 이론적 접근』, 한국문화사, 2022. 08.

3) 사업비 수주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3,403,231,554	: 2,870,268,524 : 18,991,000 : 25,698,000 25,698,000 : 462,576,030

4)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선정

▸ 참여교수 배정상, 2022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진양성트랙(3년)에 선정됨. :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

▸ 참여교수 양정석, 2022년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일반트랙(1년)에 선정됨. : <한국어 이중주어문의 형식문법>

5)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 배정상,『근대 미디어와 한국문학의 경계』

■ 신진연구인력 성과

1) 학술지 논문게재 1건

▸ 고훈,「1930년대 한국 무협소설 연구 - 강호기협전과 무술원조 중국외파 무협전을 중심으로」,『어문논집』제90집, 2022.6

달성 성과 요약

▣ [랩 운영 + 강의 → 국제학술대회 발표]

▣ [랩 운영 + 강의 → 소논문 게재, 학위논문 → 단과대 최우수(1건), 장려(2건) 논문 수상]

①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혁신적으로 추진한 GPS(국제화, 실용화, 전문화) 시스템과 MTL(미디어, 텍스트, 언어) 시스템으로 교과과정을 구성.

② 미디어, 텍스트, 언어 랩실 별로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팀을 이뤄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강의를 통해 더 세밀하고 분석적인 연구 활동을 추진함.

③ 국제 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대외적으로 연구성과에 관한 점검.

④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 소논문 게재.

⑤ 참여대학원생 소논문 및 학위논문 단과대 최우수, 장려 수상

▣ 앞으로도 본 교육연구팀의 교과 시스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가 누적될 것임

▣ 계획 대비 달성표

계획	성과	달성	미달성 (보완 및 추후 계획)
랩실 운영	MTL(미디어, 텍스트, 언어) 랩실 운영 중	✓	
창의·융합 교과목 개설		✓	
학위논문 대체 유연학위제 도입	대상자 없음		문화콘텐츠 전공자를 대비해 대체 유연학위제 준비 중
(실무) 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국어정보학> DB 구축 작업 진행 중	✓	
프론티어 세미나	11월 12일 <디아스포라 위도 - 남북일 냉전 구조와 월경하는 재일조선인 문학>	✓	
	4월 7일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자료와 이야기의 역사>		
	5월 13일 <잔여와 잉여>		
전문가 워크숍	12월 9일 <근현대 도시공간과 한국문학>	✓	
	3월 24일 <아카이브 전시의 형식 탐구>		
	3월 31일 <더 라스트 북스토어>		
	5월 12일 <경험의 체득과 건축 서사>		
논문작성 세미나	언어(Language) 랩실 : 매주 화, 금요일 진행	✓	
전문가 특강	1월 7일 <뉴스룸, 작가입니다?>	✓	
	1월 13일 <방송작가가 되고 싶어?>		

	5월 19일 <다시, 『토지』는 어디에 있는가? 『토지』연구의 성취와 남은 과제>		
	5월 27일 <세상을 바꾸는 힘, 인문학!>		
대학원 논문발표회	논문계획서 발표 세미나로 대체함	✓	
해외 동문 교수 멘토링 특강	11월 4일 <유학생에서 대학교수로의 신분전환>	✓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7월 7일~28일 (총 4회) 근대 인문학 강연 : 배정상 <신소설과 근대적 여성 주체의 탄생> <한일강제 병합과 소설의 대중화 전략>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 <강명화 정사 사건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	
	8월 4일 근대 인문학 강연 : 김성연 <여성 선교사와 문학 번역>		
동문 선후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해외 동문 교수 멘토링 특강, 동문 홈커밍 특강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중	✓	
근대 한국어문학 자료 및 콘텐츠 번역, 저서 출간	『한국 근대 괴담 자료집』 출간 예정	✓	
	『속담과 물명의 세계』 출간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제도 활성화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 이후 진행할 계획임.
유학생 연구자 교류 모임 개최			코로나 사태 진정 국면 이후 진행할 계획임.
국제 학술대회 및 단기 해외연수	본 교육연구팀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	✓	
텍스트 마이닝 교과목 개설			2022년도 1학기 <텍스트 마이닝> 대상자가 없었던 관계로 개설 연기함
학술지 심사료 및 게재료 지원	학술지 논문 게재료 지급 : 장기영	✓	
참여대학원생 성과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급	참여대학원생 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중	✓	
우수 논문, 최다 논문 인센티브 지급	성과급 지급 시행 : 2022년도 1학기 대상	✓	
학위논문 예비 발표 제도 의무화	해당 대상자가 있으면 실시	✓	
인큐베이팅 세미나	12월 29일 <육필 원고와 유품은 어떻게 온라인에서 기록되고 전시될까?>	✓	

	1월 20일 <게릴라 아카비스트가 역사를 구한 방법>		
	1월 27일 <초국가적 미디어와 디지털 기억>		
	3월 23일 <Feel the Rhythm of Korea를 통해 본 문화콘텐츠의 성패>		
	3월 30일 <지역 홍보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실무>		
학술 답사			문화기획 특랙과 관련해 9월부터 점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지역・사회 관련 학술모임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	HK+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사업 지원	✓	
학부 대학원 연계과정 강화	문예리뷰그룹 2기 활동, 3기 예정	✓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2021-2학기 외국인 신입생 1명 2022-1학기 외국인 신입생 1명 2022-2학기 외국인 신입생 1명	✓	
참여대학원생 기숙사 제공	기숙사 비용 제공 : 정민지, TANHONGDA	✓	
대학원생 합동연구실 배정	참여대학원생 사용 중	✓	
해외연수 기회 제공	2022 일본국제교류기금 전문일본어연수 문화・학술전문가 코스 합격 : 장기영	✓	
우수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2021.09.06.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	
	2022.01.25.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2월 8일 대학원,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6월 29일 외국인 유학생 간담회	✓	

▣ 사업팀 연구성과물

사업팀 연구성과물			
분류	성과물	내역	비고
참여교수 연구 성과	배정상,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활동과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 : '사회소설' 『단소』와 『죄악의 씨』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9.	논문	
	배정상, 「『조선신문』 소재 최찬식 소설 연구」, 『동방학지』 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9.	논문	
	양정석, 「한국어 의문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 이론적 접근」, 배달말 69, 배달말학회, 2021.12.	논문	

	김성연, 「시인 윤동주의 이동하는 신체와 언어적 실천, 그리고 '디아스포라' 라는 방법론」, 『현대문학의 연구』, 2022.2.	논문	
	배정상, 「백야 이상춘의 신소설 연구」, 『한국민족문화』 8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3.	논문	
	김성연, 「근대 초기 선교사 기록에 담긴 후각 감각을 통해 본 문화번역의 가능성」, 『인문과학』, 2022.4.	논문	
	배정상, 「『조선문단』의 미디어 전략과 문단 권력의 창출」, 『인문논총』 79집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5.	논문	
	노혜경, 「현공렴의 『일선잡가』 연구 - 문화의 번역과 전이」, 『동양학』 8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2.7.	논문	
	배정상, 『근대 미디어와 한국문학의 경계』, 소명출판, 2021. 10.	저서	
	김형태, 『속담과 물명의 세계』, 학자원, 2022. 07. 25.	저서	
	양정석, 『한국어 의문 구문과 의도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 이론적 접근』, 한국문화사, 2022. 08.	저서	
신진연구인력 연구 성과	고훈, 「1930년대 한국 무협소설 연구 - 강호기협전과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을 중심으로」, 『중앙어문』 제90집.	논문	
참여대학원생 연구 성과	장기영, 「영화 <69세>의 기록의 레이어를 통해 본 재현과 실재의 관계>, 『대중서사연구』 28권 1호.	논문	
	정민지, 「한국어 접속문의 분류」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TANHONGDA, 「한국어 명시어 구조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관계 고찰」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TENG YULONG,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목적어문의 대응 관계 검토」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채예람, 「'정동' 의 텍스트 『토지』」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최석열, 「『토지』에 나타난 '용정' 의 의미」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이윤조, 「근대계몽기 시가에 구현된 인물 유형과 주제의식 연구 - 『대한매일신보』를	국제학술대회 논문	

	중심으로」	발표	
	최석열,「이효석 장편소설『벽공무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LIUYI,「한국어 '-지' 접속문과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에 관한 대조 연구」	석사학위 논문	
	2022-1학기 대학원혁신 우수 논문 수상 단과대학 최우수(장기영) 단과대학 장려상(최석열, LIUYI)	수상	
	2022년도 청년예술인지원 공모 최종 선정 : 장기영	공모 선정	

미흡한 부분 / 문제점 제시	▣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참여대학원생 연구성과의 정량적 성과 향상이 필요함. 해당 문제는 첫째, 대학원 진학생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둘째, 대학원생 중 유학생 비중이 높아서 학술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대학원생 주도의 연구 세미나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도 진행했음. 이후 연구성과물을 학술지 소논문 게재로 발전시킬 계획에 있음. 이러한 시도가 참여대학원생 연구성과물 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실제로 장기영 참여대학원생의 소논문은 대학원혁신 최우수논문에 선정되었으며, 최석열, LIUYI 학생의 석사학위논문도 장려상을 받았음. 인문학 연구 특성상 학문적 연구성과가 단기간에 나오기는 힘듬. 참여대학원생 연구성과물의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랩실 운영을 통한 개별적 연구지도 및 여러 프로그램과 학술대회 참여 등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지 논문 투고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곧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임. ▣ 앞으로 꾸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본 사업팀이 구상하고 있는 연구성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라 예상함. ▣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무시할 수 없음. 대내외적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함. 향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
차년도 추진계획	▣ 2차년도와 큰 차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임. 다만 참여대학원생의 학기 변화에 따른 교과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있음. ▣ 참여대학원생 연구성과물이 많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임.

BK 매지학술 특강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역량 강화
한중번역자양성 세미나	외국인 유학생(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번역 과정
해외학자 초청	<한국 근대소설 비평의 영어 번역본 출판 과정에서의 문화번역의 문제에 관한 한국문학 소장학자와의 대담> 양윤선(보스턴 대학),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단과 공동주최
LT 교육과정 개발 과목 운영	신진연구인력과 학문후속세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 변환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 운영	<한국근대대중소설연구>를 2022학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과목으로 운영 개선 진행할 예정, 이를 통해 여러 사회 문제 중 지역 사회 인구감소 문제에 주목하여 해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화 콘텐츠 기획을 추진하기로 함.
융합연구지원 과제 진행	참여교수 김성연 과제 선정,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융합연구지원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노년기 글쓰기의 시대별 의미와 사회적 조건에 관한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 보건과학 전공자와 협력하는 융합연구
대외활동(학술대회, 지역 연계 프로그램) 추진 예정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
참여대학원생 설문조사 및 내용 반영	참여대학원생의 기대 및 학문적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매학기 진행 중
학술대회 개최 준비 <근대문학과 미디어 – 감각과 재현의 변이> (2022년 12월 29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연계한『토지』관련 학술대회 준비 중 한국문학연구학회, 토지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 예정

▣ 2022-2학기부터는 “BK 매지학술 특강”을 신설해 중견 학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

▣ “한중번역자양성 세미나”는 번역 전문가를 초빙해 약 10회 걸쳐 진행할 예정임. 추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도 있음.

▣ LT(Learning by Teaching) 교육과정은 전임교원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신진연구인력,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Ⅰ 교육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 글	한 수 영	영 문	SooYeong Han
소 속 기 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부)	

<연구>

교육연구팀장 한수영은 동아대학교(2002~2012) 교수를 거쳐 2013년도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 근대소설 및 근대비평이 전공임. 특히, 한국근현대문학의 이데올로기와 언어, 그리고 문학 주체의 상관관계를 사상사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탐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음. 『문학과 현실의 변증법』(1997)을 필두로, 『한국현대비평의 이념과 성격』(2000), 『소설과 일상성』(2000), 『친일문학의 재인식』(2005, 학술원우수상), 『사상과 성찰』(2011),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2015), 『정치적 인간과 성적 인간』(2017) 등 7권의 단독저서와 최근의 공저서인 『3・1운동의 문학적 재인식』(2019)을 비롯한 수십 권의 공저서, 그리고 최근 논문인 「‘죽음의 집’의 기억-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다시 읽기」, 「일신상의 진리, 혹은 신체의 현상학-1930년대 김남천 문학의 방법론적 전회에 관한 재해석」을 비롯한 수십 편의 전공논문이 있음. 『한국문학의 이해』(2000), 『한국근대작가론』(2015) 등 교육 관련 공저서도 수 편이 있음.

<행정>

한수영은 연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교내 연구기관으로서 한국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한국학연구소’의 부소장(2013~2016)과 소장(2017~2018)직을 차례로 맡아, 연구소의 학술사업 및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외부 연구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해 온 바 있음. ‘근대한국학연구소’ 부소장 재직 중에는 연구소의 직제를 개편하는 한편, 연구소 학술지 <근대한국학연구>를 창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음. ‘근대한국학총서 100권 간행’을 기념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이를 기리는 ‘총서 100권 간행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조직하여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음. 또한, 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도에는 ‘근대한국학의 지적 기반 성찰과 21세기 한국학의 전망’을 아젠다로 ‘인문한국학(HK+)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학 연구방법론의 창발적인 개선 및 해외 한국학과의 상호연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특히, HK+사업단의 초창기에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한 인적, 물적 토대를 다지고, 사업단의 제반 규정 정비 및 조직도 구성, 연구 인력의 연구실 및 데이터베이스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대학 당국과 수많은 행정적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정을 무난히 추진하여, 사업이 안정화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바 있음. 또한,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역인문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단 부설 ‘지역인문학센터’의 센터장을 맡으면서, 평창청소년수련원, 원주YMCA, 각 단위의 군부대 등 지역의 여러 기관과 MOU를 맺고 지역인문학 교육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 2022학년도부터 소속 단과대학인 ‘글로벌창의융합대학’의 연구부학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특히 인문예술분야 전공과 사회과학 전공의 융합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융합연구과제 지원사업 및 융합연구세미나)을 주도하고 있음.

<교육>

한수영은 2014~2018년에 걸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가 수주한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2016~2017년에 단장직을 수행하면서, 연구재단의

연차 평가 및 단계평가에서 최우수등급(S등급)을 판정받으며 특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특히, 한수영은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으로 구분된 전통적인 국어국문학과의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미디어(media), 텍스트(text), 언어(language)를 중심으로 한 MTL 특성화 교과과정 체계를 새롭게 설계・운영하였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산업 사회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적 기틀이 되었음. 또한 학부에서는 「근대문학사」, 「근대비평사」, 「근대작가론」, 「한국근현대문학입문」, 「한국 현대문학의 이해」 등을, 대학원에서는 「한국근대작가연구」, 「현대서사이론연구」, 「현대소설이론연구」, 「현대소설연구」, 「문학연구방법론」, 「식민지와 이중언어문학」 등의 교과목을 담당하여 학술적 연구역량을 학생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 바 있음.

<국제화>

교육연구팀장 한수영은, 미국 듀크(Duke)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Asia and Pacific Studies Institute) 객원교수(2008~2009)와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글로벌지역문화학부 객원교수(2019)를 지낸 바 있으며, 여러 차례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및 초청특강, 그리고 학술교류사업을 통해 폭넓은 해외기관과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河野貴美子・Wiebke Denecke・新川登龜男・陳野英則(편)의 『日本‘文’学史-‘文’から‘文学’へ:東アジアの文学を見直す』(勉誠出版, 2019)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記憶と解釈としての文学―戦争体験と韓国近代文学」이란 논문을 북챕터로 수록한 바 있음. 2019년도에는 일본 교토의 도시샤(同志社)대학 도쿄의 무사시(武藏)대학에서 한국근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차례씩 초청특강을 진행했음. 이처럼 교육연구팀장 한수영의 연구, 행정, 교육 역량은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2. 대학원 학과(부) 소속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 1-1>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단위: 명)

대학원 학과(부)	학기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국어국문학과	2021년 2학기	7명	7명
	2022년 1학기	7명	7명

<표 1-2> 최근 1년간(2021.9.1.~2022.8.31.)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김성연	2021년 2학기	전입	신규 임용	
2					
3					
4					

<표 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명, %)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국어국문	2021년 2학기	9	3	33	4	3	75	6	3	50	19	9	47
	2022년 1학기	7	1	14	7	5	71	5	2	40	19	8	42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2021년 2학기 1.28 / 2022년 1학기 1.14											

■ 참여교수 구성 및 현황

▸ 2022년 월 일 현재 사업 참여교수 7명으로 구성(소속 교수 100% 참여)

연번	성명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사업참여
1	한수영	문학비평(국문학)	X	X	O
2	고석주	국어학	X	X	O
3	김성연	근현대문학	O	X	O
4	김형태	국문학	X	X	O
5	노혜경	일본근현대문학	X	X	O
6	배정상	현대소설(국문학)	X	X	O
7	양정석	통사론(국어학)	X	X	O
참여율			100%		

▸ 2021년 2학기 임용 프로세스를 통해 우수 전임 인력(김성연)을 선발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신임교수는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 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했던 것에 부응해 문화기획과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기획·진행했으며, 한국관광공사와의 MOU 체결 등 여러 성과를 내고 있음.

■ 신진연구인력 현황

▸ 2021년 3월 1일 자 신진연구인력 1명 참여함.

이름	전공	학위논문	경력
고훈	만화	한국 스포츠만화의 서사연구 -80년대와 9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	- 강의 : (2007년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조교(2008~2010) - 만화포럼 위원(2020~2021)

■ 참여대학원생 구성 변경 및 현황

▸ 참여대학원생 구성 변경

▸ 2021년 9월 참여대학원생 8명 사업 참여, 11월 LIUYI 참여.

연번	성명	과정	MTL	외국인/내국인	국적
1	TANHONGDA	박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2	TENG YULONG	박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3	LIUYI	석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4	NIMENGYUAN	석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5	LIANG JIAMING	석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6	정예은	석박통합	Language	내국인	한국
7	장기영	석박통합	Text	내국인	한국
8	정민지	석박통합	Language	내국인	한국
9	채예람	박사(수료)	Text	내국인	한국

▸ 참여대학원생 현황

▸ 2022년 3월 사업 시작 시 8명으로 구성

▸ 2022년 3월 최석열, 이윤조 참여

▸ NIMENGYUAN, LIANG JIAMING, 정예은 성과 부족으로 참여 제외

연번	성명	과정	MTL	외국인/내국인	국적
1	TENG YULONG	박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2	TANHONGDA	박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3	LIUYI	박사	Language	외국인	중국
4	장기영	석박통합	Text	내국인	한국
5	정민지	석박통합	Language	내국인	한국
6	이윤조	석사	Text	내국인	한국
7	채예람	박사(수료)	Text	내국인	한국
8	최석열	박사	Media	내국인	한국

3.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달성정도

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1-1. 비전 및 목표

본 교육연구팀 목표는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 교육을 통한 창의적·융합적·국제적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임.

이를 위해 탈경계(borderless), 즉 학문과 학문, 대학과 산업,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전문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함.

본 교육연구팀은 탈경계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행하고자 함.

첫째, 학문 내부의 경계, 또는 타 학문과의 경계를 허물고 통섭적·융합적 연구 및 교육을 지향.

둘째, 창의적인 실무 연계 교육을 통해 대학과 산업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대학의 학문이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셋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연구성과 또는 인재 양성의 국제화를 지향함.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통해,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의 세계적 중심 대학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임.

본 교육연구팀의 대표적 미래 목표는 다음과 같음.

4차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 환경 속에서 한국어문학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전문 학술연구자 양성.

뉴미디어의 시대에 '근대 한국어문학'과 관련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 문화기획자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를 양성.

1-2. 연구

본 교육연구팀은 기존 국어국문학과와는 달리 근대 시기 한국어문학에 집중함으로써, 이 분야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원으로 성장하고자 함.

한국의 근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근원적 시공간임.

이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탐구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음.

근대 시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자료가 산적해 있으며, 더 깊이 있는 학문적 진전이

필요한 연구과제가 무수히 남아 있음.

본 교육연구팀은 향후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하여 학계에 보고하고, 이러한 자료에 기반을 둔 실증적 연구 학풍을 계승·발전시켜 나아갈 것임.

마지막으로, 본 교육연구팀은 동아시아적 시야를 갖춘 근대 한국어문학 연구를 통해 연구의 국제적 확산을 시도하고자 함. 근대 시기 한국어문학의 형성 과정은 인접한 중국, 일본과의 밀접한 영향 관계 안에서 이루어졌음. 이를 토대로 근대 한국어문학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고, 중국 및 일본과의 학술교류를 통해 근대 한국어문학 연구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함.

1-3. 교육

본 교육연구팀은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특화된 창의적·융합적·국제적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자 함.

본 교육연구팀은 '근대 한국어문학'에 전문화된 대학원 교육을 위해 고전문학, 현대문학, 국어학으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국어국문학과의 전공 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미디어, 텍스트, 언어 중심의 새로운 교과과정 시스템을 수립하였음. 한편, 석사학위를 마치고 산업 현장의 전문가로 활약할 인재 양성을 고려하여, 한층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본 교육연구팀이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자료 중심의 실증적 연구 학풍을 계승한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 학술연구자

둘째, 전문적 학술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문화기획자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본 교육연구팀은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술연구자 트랙(박사)과 문화기획자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석사)을 구분하여 운영 중.

2. 미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2-1. 전문화

■ 고도화된 MTL 교과과정 시스템 운영 : 2015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 선정 이후 현재까지 학부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실험을 마친 상태이며,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함.

■ MTL 교과과정 시스템에 따른 랩실 운영 : 사업 시작과 함께 랩실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음. 각 랩실에서는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를 통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임.

■ 창의·융합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1:1 학생 밀착 지도 시스템 : 학생 밀착 지도의 일환으로 개인 상담 및 논문 지도를 진행하고 있음.

■ 논문작성을 위한 멘토링 세미나 운영 : 대학원을 졸업한 선배가 진행하는 멘토링 세미나를 기획·실시했으며, 논문작성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음.

■ 프론티어 세미나 :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프론티어 세미나를 운영하고자 함. 최근 관련분야에서 훌륭한 논문, 저서를 제출한 신진 연구자를 초청하여, 연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 앞으로의 연구 계획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임. 신진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2-2. 실용화

■ 학위논문 대체 실적 인정을 통한 실무형 유연 학위제 도입 : 본 교육연구팀이 혁신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다양한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자 함. 현재 참여대학원생 중 문화콘텐츠 전공자가 없는 관계로 유연 학위제를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 분야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양성·배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을 위한 교과목 개발

▸ <근대 미디어와 문학연구>, <한국 근대문학과 문화기획>, <고전문학사와 스토리텔링 연구 방법론>, <식민지 출판문화 연구>, <근대 고전문헌 서지 연구>, <근대 미디어 자료 강독>, <근대 영상미디어와 문학>과 같은 과목을 신설해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을 준비하고 있음.

■ 실용화를 위한 인력 충원

▸ 2021-2학기부터 신규 교원을 임용함. 신규 교원은 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 관련분야의 실무능력이 뛰어난 인재로 본 교육연구팀의 실용화 트랙의 주요 업무를 담당해 많은 실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자료 기반 (실무)프로젝트 교과목 운영

▸「텍스트 마이닝」의 경우 2022년 1학기를 기준으로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학기 대상자가 없어서 연기함. 석사 3학기를 기준으로 개설할 계획이었기에 2023년 1학기에 개설 예정임.

■ 문화콘텐츠 제작 전문가 워크숍 운영

▸ 방학 중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기획함. 2021년 1월과 7월에 2차례 전문가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참여대학원생의 높은 호응을 얻었음. 2년 차에는 문화콘텐츠 제작 및 기획 분야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전문가 특강, 인큐베이팅 세미나,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영화, 뮤지컬, 출판, 건축, 광고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진행함. 특히 광고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했던 인큐베이팅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맺는 성과를 거둠.

■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 대학과 지역 사회 간 '학역(學域) 상생'을 도모하려는 의도임. 문학관, 도서관, 협동조합, 관공서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활발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온라인 방식을 통한 지역 특강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함. 2차년도에도 원주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근현대 인물 열전" 및 "근대 인문학 강연"에 참여했음.

■ 동문 선후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을 초청하여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술적 성과들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 역시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점차 확대할 예정임.

2-3. 국제화

■ 근대 한국어문학 자료 및 콘텐츠 번역 확산

▸ 근대 한국어문학 자료 및 콘텐츠의 번역을 통해 대학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한류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근대 시기 중국어, 일본어, 한문으로 쓰인 자료를 번역하고 이를 자료집의 형태로 발간하여 학계에 기여하고자 함. 언어 랩실에서는 양계초의『음빙실문집』에 등재한 글을 순한문, 국한문, 일본어로 원문 텍스트 구축을 진행하고, 이를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이 작업은 시간을 요구하기에 아직 본격적인 성과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업량이 누적됨에 따라 성과물이 나오고, 추후 자료집 발간도 기대할 수 있음.

■ 해외 동문 교수 멘토링 시스템 구축

▸ 본 교육연구팀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선배를 연결하여 후배 유학생들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본 교육연구팀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1차년도에는 사천 외국어대학교 교수 왕례량을 초빙해 중국에서의 한국어학과 개설 현황과 취업, 중한 대조언어학 연구의 현황과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해외 동문 교수 멘토링 특강을 진행하였고, 2차년도에는 강서 사범대학교 임문연 교수를 초빙해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활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교수 취업을 하게 된 과정 및 학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기회를 제공함.

■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활성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환학생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비대면 상황의 일상화로 인한 변화에 발맞추고자 새로운 형태의 국제화 및 해외 교류를 모색하고 있음. 이러한 일환으로 해외 대학과 '온라인 대학원 강의 개방 및 교환'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향후 '학점교환제'나 '공동학위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 현재 Duke대학(미국), 立命館대학(일본), 同志社대학(일본), 南京大學(중국)과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 타진을 진행 중임.

■ 유학생 연구자 교류 모임 개최

▸ 코로나 사태로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자 교류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교류 모임을 추진하고자 함.

■ 국제학술대회 및 단기 해외연수

▸ 코로나 사태로 진행에 어려움이 많음. 국제학술대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상황에 맞춰 진행할 예정임. 위에서 언급한 '온라인 대학원 강의 개방 및 교환'에 관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기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3. 주요 성과

■ MTL 교과과정 시스템 운영

▸ 2020-2학기 대학원 개설 교과목 <국문학 연구의 제문제>에서는 1930년대 김남천 소설과 비평을 집중적으로 검토함. 정규 대학원생 및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과 일본인 학자(다카하시 아즈사)도 참여하여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소설 및 비평에 관한 비교문학적 접근을 시도함.

▸ 2020-2학기 대학원 개설 교과목 <동아시아 삼국의 유서류 비교론>에서는 『사전 시대를 엮다』, 『조선 후기 유서와 지식의 계보학』을 통해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조선의 유서류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동아시아의 지식 문화사를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식과 사고의 확장을 꾀함.

▸ 2021-1학기 대학원 개설 교과목 : <한국 근대소설사>, <근대 문학 사상사>, <한국 근대 대중문학연구>와 같은 신규 특성화 교과목을 개발해 운영했음.

▸ <한국 근대소설사>에는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이 대거 참여해 중국 근대소설사 개요 및 대표적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는 비교문학적 시도가 있었음.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근대문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동아시아 문학에 관한 비교문학적 시각과 지평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할 수 있었음.

■ 랩실 운영 (밑줄 : 참여대학원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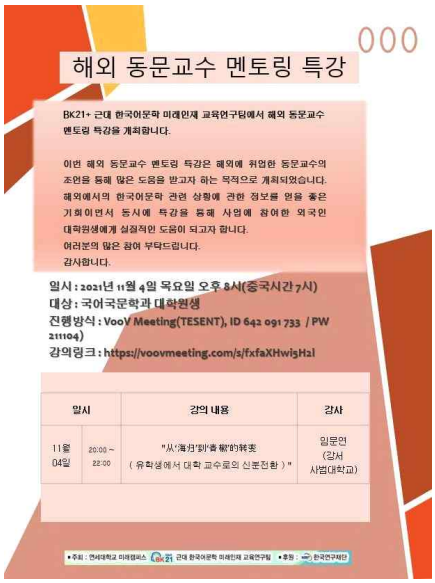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랩실 소속 현황(2021-2)			
※ 밑줄 표시 = 참여대학원생	미디어 랩	텍스트 랩	언어 랩
담당교수	배정상, 김성연	한수영, 김형태	양정석, 고석주, 노혜경
소속 대학원생	최석열	신정은, 장기영, 채예람, 박소연, 권기연	정민지, TENG YULONG, LIUYI, TANHONGDA, NIMENGYUAN, 정예은, ZHOUFANGZHI, LIANG JIAMING, LE THI THAM, ZHAO ZHE, LIU YILIN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랩실 소속 현황(2022-1)			
※ 밑줄 표시 = 참여대학원생	미디어 랩	텍스트 랩	언어 랩
담당교수	배정상, 김성연	한수영, 김형태	양정석, 고석주, 노혜경
소속 대학원생	최석열	신정은, 장기영, 채예람, 박소연, 권기연, 이윤조	정민지, TENG YULONG, LIUYI, TANHONGDA, NIMENGYUAN, 정예은, ZHOUFANGZHI, LIANG JIAMING, LE THI THAM, ZHAO ZHE, LIU YILIN

■ 교육연구팀 비전 및 목표 대비 주요 성과 (날짜순 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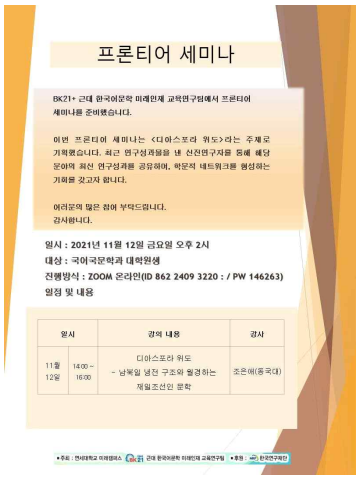
▸ 교육연구팀 비전 및 목표 대비 주요 성과

국제화	해외 동문교수 멘토링 특강
목 적	• 본 교육연구팀의 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선배를 연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둠
계 획	• 2021년 11월 4일 : <유학생에서 대학교수로의 신분전환> / 강서사범대학교 임문연 • 중국에 거주하는 강연자의 사정을 고려해 ZOOM이 아닌 TENCENT MEETING을 활용해 진행함
내 용	• 외국인 유학생으로 경험한 한국에서의 연구 경험을 전달하고 조언을 함 ▸ 중국에서의 한국어학과 개설 현황과 취업에 관한 논의도 진행함 ▸ 중국인 유학생에게 관련 논문작성에 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조언함 ▸ 선배 연구자로서 후배 연구자에게 조언함 ▸ 유학 생활과 관련 실질적인 조언을 함
성 과	•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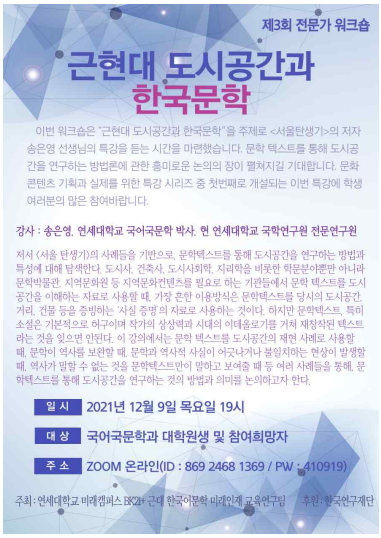


	• 선배 동문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학술 네트워크 구성의 기회를 마련함 •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 롤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학문적 의지 고양의 기회를 마련함
참여인원	• TENG YULONG, TANHONGDA, NIMENGYUAN, LIANG JIAMING
기 타	

전문화	**제 3회 프론티어 세미나**
목 적	•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초빙하여 관련분야 최신 연구 경향, 성과, 연구 경험 및 계획 등을 듣고, 신진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증진을 도모함
계 획	• 2021년 11월 12일 : <디아스포라 위도 - 남북일 냉전 구조와 월경하는 재일조선인 문학> / 동국대학교 조은애
내 용	• 조은애의 박사학위 논문을 주요 대상으로 '재일조선인 문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문답의 장치'라는 개념과 원리에 관한 설명 - 연구 핵심 개념과 재일조선인에 관한 역사적 용어 설명 - 관련 텍스트를 소개하고 그 텍스트와 얽힌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귀국'과 '북송'에 관한 논의
성 과	• 근대 시기의 한국어문학 관련 신진 연구자의 연구 경험을 통해 학문적 교감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 관련분야 최근 연구성과물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됨 • 국내 신진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 외부 인력(심희찬-근대한국학연구소)도 참여해 학문적 교류의 장을 넓힐 수 있었음 • 1회, 2회 프론티어 세미나와 관련해 '한일 관계 -전후문학과 조선 ▸ 일본 작가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연관성을 유지해 참여대학원생에게 관련분야에 관한 정보 전달 및 자극을 주는 기회를 마련함
참여인원	• 김지석, LE THI THAM, 손성혁, 신정은, 장기영, 채예람, 최석열, 심희찬(근대한국학연구소)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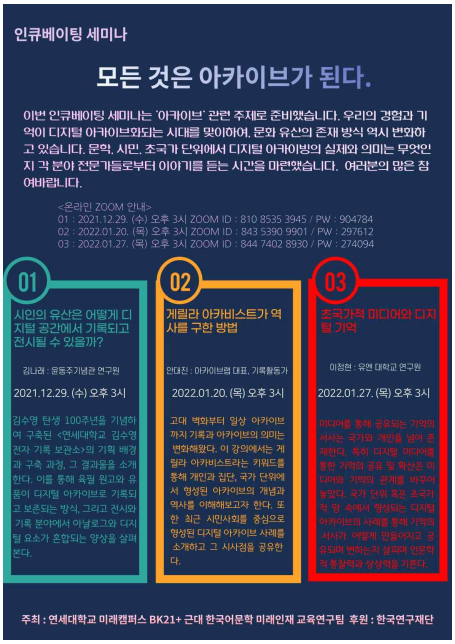


전문화	제3회 전문가 워크숍
목 적	• 전문가의 저서를 기반으로 문학 텍스트를 통해 도시공간을 연구하는 방법과 특성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 • 문학 텍스트 기획 및 제작에 관한 경험과 관련 조언을 전문가를 통해 듣는 시간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간접 경험을 하게 함
계 획	• 2021년 12월 9일 : <근현대 도시공간과 한국문학> / 연세대학교 송은영
내 용	• <서울 탄생기>를 기반으로 문학 텍스트를 통해 도시공간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관한 논의 - 문화콘텐츠와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관계 및 실제 사례를 비교 분석함 - 부산, 인천, 성북 등의 실제 사례를 제공함 - 1960년대 남촌과 북촌, 서촌, 종로, 을지로 등 문학 작품 속 도시공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성 과	• 참여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생과 학부생도 참여해 활발한 학술논의의 장을 펼침 • 문학 텍스트와 도시공간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관련한 지식을 습득함. • 특강사의 저서 <서울 탄생기>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공간 연구에 관한 특성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함
참여인원	• TENG YULONG, 장기영, TANHONGDA, 정민지, 채예람, LIUYI, 최석열, LE THI THAM, 정예은, 이윤조, 박지인, 김지훈, 최우식
기 타	



전문화 실용화	제1회 인큐베이팅 세미나

목 적	•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임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계 획	• <모든 것은 아카이브가 된다> 1) 2021년 12월 29일 : <시인의 유산은 어떻게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되고 전시될 수 있을까?> / 윤동주기념관연구원 김나래 2) 2022년 1월 20일 : <게릴라 아카비스트가 역사를 구한 방법> / 아카이브랩대표, 기록활동가 안대진 3) 2022년 1월 27일 : <초국가적 미디어와 디지털 기억> / 유엔대학교 이정현
내 용	• 연세대학교 김수영 전자 기록 보관소 기획 배경과 구축 과정 및 그 결과물을 소개함 - 육필 원고와 유품이 디지털 아카이브로 보존되는 방식, 전시와 기록 분야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요소가 혼합되는 양상을 살펴봄 • 게릴라 아카비스트의 개념을 설명함 - 개인과 집단, 국가 단위에서 형성된 아카이브의 개념과 역사를 설명함 -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소개함 • 국가 단위 혹은 초국가적 망에서 형성되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사례를 소개함 -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의 서사가 구성되는 방식을 통해 인문학적 통찰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방식을 주제로 논의함



성 과	• 문화콘텐츠를 기획, 구성하는 전문가를 통해 실제 콘텐츠 제작 및 기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음 •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문화콘텐츠의 실례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
참여인원	• 1차 : 최석열, 장기영, TANHONGDA, 채예람, TENG YULONG, 정민지, LE THI THAM, 권기연 • 2차 : TANHONGDA, TENG YULONG, 장기영, 채예람, LE THI THAM, 신정은 • 3차 : TANHONGDA, 장기영, 채예람, LE THI THAM, 옌
기 타	

전문화	전문가 특강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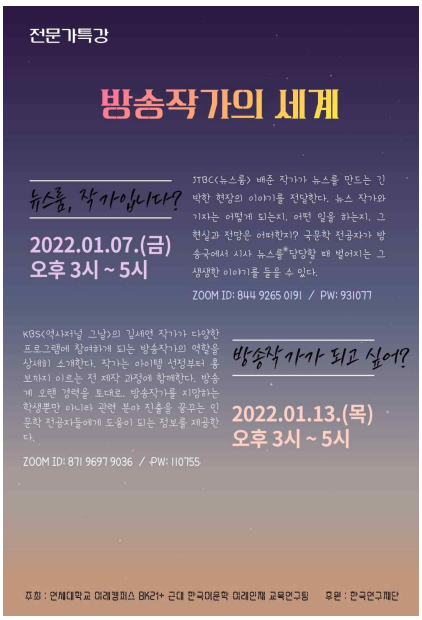
- 문화콘텐츠 트랙의 일환으로 미디어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체험을 전달하고자 함
- 방송작가, 시사 작가라는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관련 직종의 현황을 살펴봄

계 획

일시		강의 내용	강사
01.07.(금)	15:00~17:00	뉴스룸, 작가입니다?	배준 (프리랜서 방송작가)
01.13.(목)	15:00~17:00	방송작가가 되고 싶어?	김세연 (방송작가)

내 용

- JTBC <뉴스룸> 작가를 통해 뉴스를 만드는 긴박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달함
  - ▸ 뉴스 작가와 기자의 역할과 현실 및 전망에 관한 논의
- 교양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정보를 전달
  - ▸ KBS <역사저널> 작가에게 아이템 선정에서 홍보에 이르는 프로그램 제작 전 과정에 관한 논의
  - ▸ 방송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인문학 전공자를 위한 정보 전달



성 과

- 낯선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의 확장을 꾀할 기회를 제공함
-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 연구영역의 확대를 도모함
- 방송 분야에 관심 있는 학부생도 많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얻을 기회를 마련함

참여인원

- 장기영, 채예람, TANHONGDA, 최석열, LE THI THAM, 신정은, 박민진, 안현수, 김준석, 방민지, 박주희
- TANHONGDA, TENG YULONG, LE THI THAM, 박소연, 이소현, 홍수아

기 타

전문화 실용화	제2회 인큐베이팅 세미나

목 적	•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임 •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함
계 획	• 2022년 3월 23일 : <Feel the Rhythm of Korea를 통해 본 문화콘텐츠의 성패> / 한국관광공사 함창호 • 2022년 3월 30일 : <지역 홍보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실무> / 한국관광공사 함창호
내 용	• 전 세계 3천만 조회 수를 기록한 한국 홍보 영상을 기획, 제작한 전문가를 초빙해 문화콘텐츠 기반의 영상 기획에 관한 실무적 경험 전달함 - 실제 제작 현장을 담은 영상과 제작 과정을 통해 영상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함 • 문화콘텐츠 생산과 관련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함 - 지역 기반의 홍보 영상물 기획과 제작에 관한 논의 - 한국관광공사와 광고대행사의 협력 사례 제시 이번 인큐베이팅 세미나는 '문화콘텐츠' 관련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문화콘텐츠를 기획, 제작, 생산하는 전문 실무자의 이야기를 생생한 현장 경험과 더불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Feel the Rhythm of Korea를 통해 본 문화콘텐츠의 성패>** 한국 홍보 영상이 전 세계 3천만 조회수를 넘는 기록을 갱신하였다. 이 트렌드를 주도한 한국관광공사 마케팅 실무자에게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영상 기획의 성패에 관해 들어본다. **2. <지역 홍보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실무>**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잘 짜여진 기획을 기반으로 좋은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광고대행사의 협력 사례를 통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무에 관해 알아본다. 1 : 3월 23일(수) 오후5시 - 줌(880 0668 3536 / 226411) 2 : 3월 30일(수) 오후5시 - 줌(818 7576 2155 / 974814) 특강사 : 함창호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 차장) 주최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BK21+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후원 : 한국연구재단
성 과	• 문화콘텐츠를 기획, 구성하는 전문가를 통해 실제 콘텐츠 제작 및 기획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음 • 화제성을 지닌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 생산의 실무자를 통해 현장의 생생함과 실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한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잘 살릴 수 있었음 • 참여대학원생과 일반 대학원생 외에도 광고나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은 학부생이 대거 참여함 • 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도 진행됨
참여인원	• 1차 : TENG YULONG, 최석열, 이윤조, TANHONGDA, LIUYI, 정예은, LE THI THAM • 2차 : TENG YULONG, 최석열, TANHONGDA, LIUYI
기 타	

전문화	제4회 전문가 워크숍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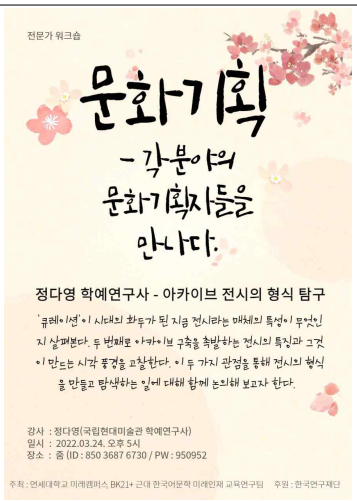
- 각 분야 문화기획자를 만나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련분야 정보를 얻고자 함
- 문화기획 및 실제 현장의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문화기획과 관련한 여러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계 획

일시		강의 내용	강사
3월 24일	17:00 ~ 19:00	아카이브 전시의 형식 탐구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3월 31일	17:00 ~ 19:00	더 라스트 북스토어	정지돈(소설가)

내 용

- ‘문화기획’과 ‘전시’, ‘도서 판매’에 관련해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함
  - <아카이브 전시의 형식 탐구>에서는 ‘큐레이션’의 특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아카이브 구축을 촉발하는 전시의 특징과 전시가 만들어내는 시각 풍경을 고찰함
  - ‘서점’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종이책을 판매, 전시하는 일에 관한 가능성/불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성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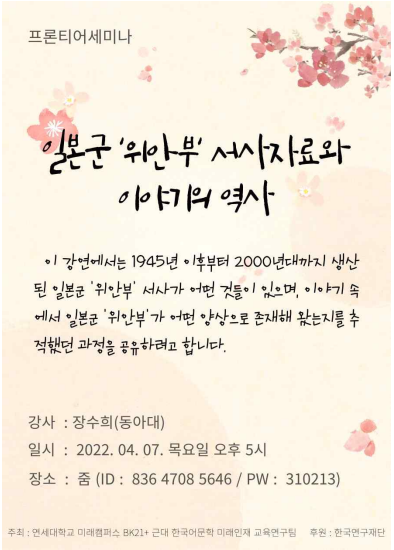
- 전시, 출판 분야의 문화기획자를 통해 새로운 분야의 정보와 내용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함
- ‘아카이브’에 관심 있는 학부생이 많이 참여해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를 마련함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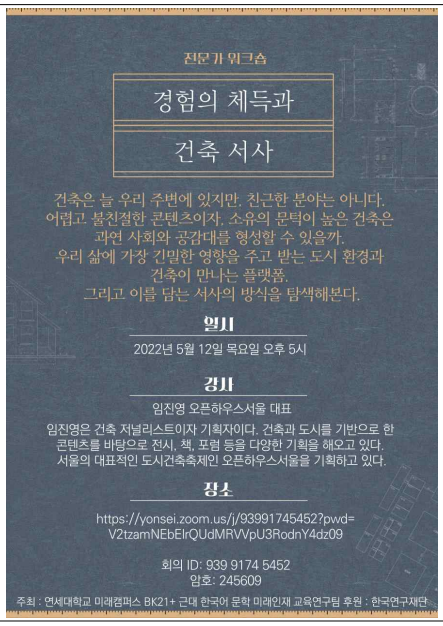
- 장기영, 최석열, 이윤조, TANHONGDA, LIUYI, 신정은, 정예은, LE THI THAM
- 이윤조, 채예람, TANHONGDA, LIUYI, 최석열, 장기영, LE THI THAM, 신정은, LIU YILIN, 최지원, 옌, ZHAO ZHE, 정예은, 노명연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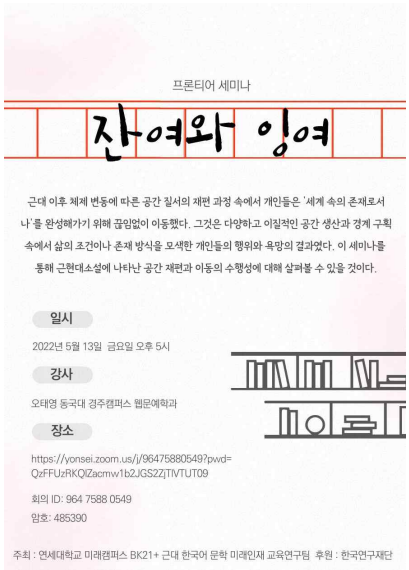
전문화	제4회 프론티어 세미나
목 적	•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초빙하여 관련분야 최신 연구 경향, 성과, 연구 경험 및 계획 등을 듣고, 신진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증진을 도모함
계 획	• 2022년 4월 7일 :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자료와 이야기의 역사> / 동아대학교 장수희
내 용	• 1945년~2000년대까지 생산된 '위안부' 서사에 관한 논의를 진행 - 식민주의, 가부장제, 국가주의, 국가폭력에 관한 개념 논의 - 45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위안부'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설명 - 중국 작가가 바라본 '위안부'를 다룬 작품을 소개



성 과	• 근대 시기의 한국어문학 관련 신진 연구자의 연구 경험을 통해 학문적 교감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 위안부 서사에 관심 있는 학부생도 대거 참여해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었음 • 관련분야 최근 연구성과물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됨 • 국내 신진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 '한일 관계 -전후문학과 조선 ▸ 일본 작가 재일조선인 문학'이라는 프론티어 세미나 주제 연관성을 유지해 '위안부'로 이어지는 거대 프로그램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에게 관련분야에 관한 정보 전달 및 자극을 주는 기회를 마련함
참여인원	• 채예람, 이윤조, TANHONGDA, LIUYI, 장기영, TENG YULONG, 최지원, LE THI THAM, LIU YILIN, 신정은, 안화영, 최은혜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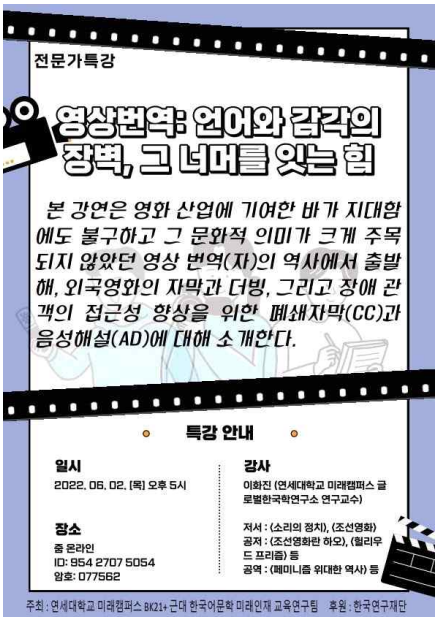
전문화 실용화	제5회 전문가 워크숍
목 적	• 각 분야 문화기획자를 만나 현장에서의 경험과 관련분야 정보를 얻고자 함 • 문화기획 및 실제 현장의 메커니즘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문화기획과 관련한 여러 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계 획	• 2022년 5월 12일 : ▸ <경험의 체득과 건축 서사> / 건축기획자 임진영
내 용	• ‘건축’이라는 생소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 - 도시 환경과 건축이 만나는 방식과 이에 담긴 서사에 관한 탐색을 진행함 - 실제 건축 사례를 통해 건축물과 도시 공간이 이룬 사회적 공감대에 관한 논의 - ‘오픈 하우스 서울’에 관한 실제 진행방식과 후일담에 관한 정보 제공 
성 과	• 생소한 분야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연구영역의 확장 기회를 제공함 • 생소한 분야임에도 참여대학원생을 비롯한 일반대학원생, 학부생의 참여도가 높았음
참여인원	• LE THI THAM, 신정은, TANHONGDA, 채예람, 이윤조, TENG YULONG, 장기영, 최은빈, 최지원, 김채연
기 타	

전문화	제5회 프론티어 세미나
목 적	•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초빙하여 관련분야 최신 연구 경향, 성과, 연구 경험 및 계획 등을 듣고, 신진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증진을 도모함
계 획	• 2022년 5월 13일 : <잔여와 잉여> / 동국대학교 오태영
내 용	• 특강사의 저서 <잔여와 잉여>를 중심으로 공간 재편과 이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근현대 소설에 나타난 공간 재편과 이동의 수행성을 살펴봄 ▸ 식민지 체제의 공간 통합과 이동에 관한 논의 ▸ 탈식민, 냉전 체제의 공간 분할과 이동에 관한 논의 ▸ 냉전, 분단 체제의 공간 중첩과 이동에 관한 논의 ▸ 월경과 연대의 기억, 경계 증언에 관한 논의
성 과	• 근대 시기의 한국어문학 관련 신진 연구자의 연구 경험을 통해 학문적 교감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함 • 관련분야 최근 연구성과물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됨 • 국내 신진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 및 교류 • 한일, 재일조선인, 위안부의 연장선에서 근대 시기 문학 작품을 통해 살펴본 경계를 통해 공간 재편에 관한 학문적 영역의 확장을 도모함
참여인원	• 채예람, 이윤조, TANHONGDA, LIUYI, 장기영, TENG YULONG, 최지원, LE THI THAM, 신정은, 최석열, 정민지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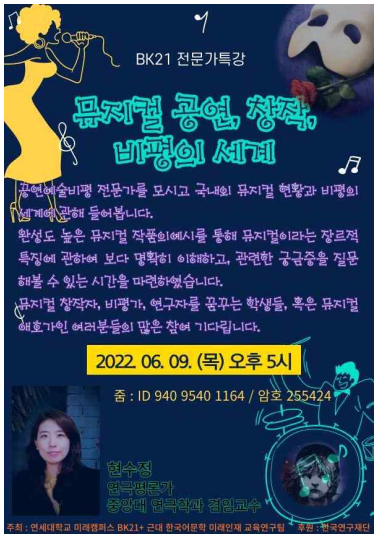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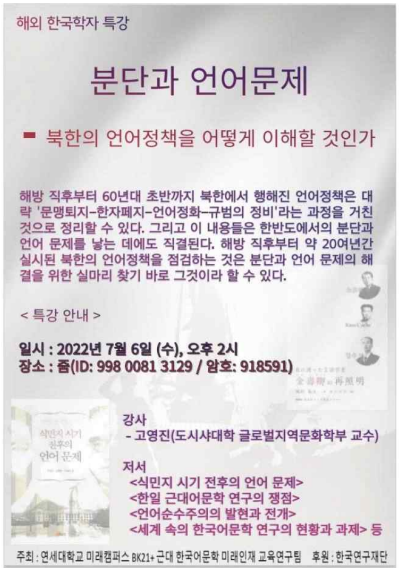
전문화	전문가 특강
목 적	• 박경리의 『토지』를 주제로 특강을 시행함으로써 본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범위 및 사고의 확장을 시도함 • 『토지』 전문가를 초빙하여 텍스트 연구의 난점과 쟁점을 살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과 그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문적 자극을 주고자 함
계 획	• 2022년 5월 19일 : <다시, 『토지』는 어디에 있는가? 『토지』 연구의 성취와 남은 과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상진
내 용	• 한국문학 연구의 거대산맥이라 할 박경리의 『토지』 연구자 50년을 살펴봄 ▸ 『토지』의 해석 내용과 특성 정리 ▸ 『토지』 연구의 난점과 쟁점 정리 및 논의 ▸ 새로운 연구영역과 그 가능성에 관한 논의
성 과	• 하나의 텍스트를 선정해 그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연구영역의 확장을 시도함 • 동일 텍스트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과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참여대학원생에게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이 『토지』라는 텍스트를 연구하고 이를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함
참여인원	• 이윤조, 최석열, 채예람, 장기영, TANHONGDA, 신정은, LIU YILIN, 정예은, ZHAO ZHE
기 타	

전문화 실용화	전문가 특강
목 적	• ‘정치’ 광고를 주제로 한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범위 및 사고의 확장을 시도함 • 선거와 광고의 연관 관계 및 인문학과의 관계를 살피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과 그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문적 자극을 꾀함
계 획	• 2022년 5월 27일 : <세상을 바꾸는 힘, 인문학! - 20대 대선 선거 캠페인을 중심으로> / 팝콘앤파트너스 변성준
내 용	• 정치광고에 관한 개념 정리 및 관련 논의 - 정치와 광고의 연관 관계 논의 - 광고와 정치 그리고 인문학과의 연관성 논의 - 실제 광고를 통해 인문학적 접근과 비평 시도
성 과	•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정치광고라는 영역을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의 확장을 시도함 • 광고와 인문학의 연관성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꾀함 •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참여인원	• 이윤조, 최석열, 채예람, 장기영, TANHONGDA, 신정은, LIU YILIN, 정예은, ZHAO ZHE
기 타	

전문화 실용화	전문가 특강
목 적	• 영상번역에 관한 특강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범위 및 사고의 확장을 시도함 • 폐쇄 자막과 음성 해설에 관한 특강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법과 그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자극을 꾀함
계 획	• 2022년 6월 2일 : <영상번역: 언어와 감각의 장벽, 그 너머를 잇는 힘> / 연세대학교 글로벌한국학연구소 이화진
내 용	• 영화 산업 중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영상번역에 관한 논의 - 영상번역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봄 - 자막과 더빙, 폐쇄 자막과 음성 해설에 관한 소개와 논의 
성 과	• 영화 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 그 안에서도 영상번역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 • 영상번역, 폐쇄 자막이라는 생소한 분야의 소개
참여인원	• 이윤조, 장기영, TANHONGDA, LIUYI, 채예람, 신정은, LE THI THAM, 이매휜, 노경민, 김성조, 허지우, 김영하
기 타	

전문화 실용화	전문가 특강
목 적	• 무대 공연에 관한 특강을 통해 본 사업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범위 및 사고의 확장을 시도함 • 연극 및 뮤지컬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뮤지컬 프로덕션 구성, 창작, 비평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통한 새로운 연구 방법과 학문적 자극을 주고자 함
계 획	• 2022년 6월 9일 : ▸ <뮤지컬 공연, 창작, 비평의 세계> / 중앙대학교 현수정
내 용	• 공연예술비평 전문가가 바라본 국내외 뮤지컬 현황 및 비평의 세계 - 국내외 뮤지컬 작품 실례를 통해 장르적 특징에 관한 설명 및 논의 - 뮤지컬 장르의 역사적 흐름 및 대표 작가와 작품에 관한 설명
성 과	•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정보 전달 및 새로운 연구 분야 확장 기회를 제공함 •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학문적 자극을 주고자 한 프로그램(전문가특강) 시행 의도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
참여인원	• TENG YULONG, TANHONGDA, 최석열, 이윤조, LIUYI, 장기영, 이수미, 최지원, 정예은, 김영수, 신정은, 오현정, 최은빈
기 타	



국제화	해외 한국학자 특강
목 적	• 해외에서 연구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 학자를 초청하여 연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방법, 앞으로의 연구 계획 등의 과정을 듣는 기회를 마련함. • 해외 한국 학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 형성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
계 획	• 2022년 7월 6일 : ▸ <분단과 언어 문제 - 북한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도시샤대학교 고영진
내 용	• 북한의 언어정책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함. - 북한과 남한의 언어정책 차이점에 관해 설명함. - '언어정책'에 관한 개념을 설명함. - '한자' 사용에 관한 내용을 설명함. - '언어 정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함. 
성 과	• 참여대학원생 외에 일반대학원생, 학부생, 타 학과 교수 등 다양한 참여가 있었음.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학자의 연구 경험과 조언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함. • 생소한 북한 언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되었음.
참여인원	• TENG YULONG, TANHONGDA, LIUYI, 이윤조, 최석열, 채예람, 장기영, LIU YILIN, 정예은, 강명호(학사지도교수), 권주은, 고석주(참여교수), 노혜경(참여교수), 김형태(참여교수)
기 타	

전문화	석학 특강
목 적	• 석학을 초빙해 본 사업팀의 아젠다인 ‘근대’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관점에 관해 듣는 기회를 마련함 • 세대를 아우르는 문제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함
계 획	• 2022년 7월 13일 : ▸ <바깥에서 사유하기 ▸ ‘정체성’의 속박을 넘어> /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철 • HK 사업단과 공동 개최함
내 용	• 근대(성)에 관한 문제의식 제기 및 논의 - ‘나’와 ‘바깥’에 관한 사유를 외국 연구자의 개념을 통해 살펴봄 - ‘에피스테메’에 관한 논의
성 과	• 오랜 기간 연구에 집중한 석학의 연구 경험과 조언을 듣는 기회를 마련함 • 한 분야에 오랜 기간 집중했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학문적 자극을 줄 수 있었음
참여인원	• 장기영, 채예람, 정예은, 신정은 • 한수영, 고석주, 김성연, 노혜경
기 타	

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애로사항 등 기술

■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분야 및 인물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음. 다만 대면과 비대면에서 드러나는 실질적인 교감과 현장감을 살리지 못하는 아쉬움은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었음. 이후 상황에 맞춰 유연한 대처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을 할 계획임.

■ 대학원생 숫자가 적고,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높은 상황 속에서도 연구성과물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임. 앞으로 더 많은 연구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에서는 대학원 설명회 및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우수한 학부생을 대학원으로 유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면 대학원생 수도 늘고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성과물도 지속해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4. 교육연구팀 차년도 추진계획

▪ 지금까지 추진한 바와 같이 꾸준한 프로그램 진행 및 랩실 운영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에 힘쓸 것임.

▪ 2022-2학기부터 “BK 매지학술 특강”, “한중번역자양성 세미나” 등의 신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LT(Learning by Teaching) 교육 과정 개발 과목 운영 및 사회 문제 해결형 교과목을 운영할 예정임.

▪ 한국관광공사와 추진한 업무협약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학술지 논문 투고 및 학술대회 참여를 독려해 참여대학원생의 학술 연구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임.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성과가 도출될 것임.

▪ 차년도 추진계획표

BK 매지학술 특강	참여대학원생의 학술역량 강화
한중번역자양성 세미나	외국인 유학생(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문 번역 과정
해외학자 초청	<한국 근대소설 비평의 영어 번역본 출판 과정에서의 문화번역의 문제에 관한 한국문학 소장학자와의 대담> 양윤선(보스턴 대학),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단과 공동주최
LT 교육과정 개발 과목 운영	신진연구인력과 학문후속세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 변환
사회문제해결형 교과목 운영	<한국근대대중소설연구>를 2022학년도 사회문제해결형 과목으로 운영 개선 진행할 예정, 이를 통해 여러 사회 문제 중 지역 사회 인구감소 문제에 주목하여 해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화 콘텐츠 기획을 추진하기로 함.
융합연구지원 과제 진행	참여교수 김성연 과제 선정,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융합연구지원과제 연구책임자 선정 (노년기 글쓰기의 시대별 의미와 사회적 조건에 관한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 보건과학 전공자와 협력하는 융합연구
대외활동(학술대회, 지역 연계 프로그램) 추진 예정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할 예정
참여대학원생 설문조사 및 내용 반영	참여대학원생의 기대 및 학문적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매학기 진행 중
학술대회 개최 준비 <근대문학과 미디어 – 감각과 재현의 변이> (2022년 12월 29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연계한 『토지』 관련 학술대회 준비 중 한국문학연구학회, 토지학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 예정

II 교육역량 영역

□ 교육역량 대표 우수성과

▣『속담과 물명의 세계』

1) 출간 의도 및 목적

▸ 2022-1학기 대학원 교과목인 <근대계몽기시가연구> 수업에서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의들 중 고사(古事)와 물명(物名)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수집 및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함.

학술서적 성격과 아울러 대중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저술을 염두에 두고, 번역 및 정리 작업을 진행함.

본 연구팀의 텍스트 랩과 미디어랩의 융・복합적 연구성과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양 영역의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음.

▸ 참여 인원: 김형태(담당・참여교수) / 장기영, 최석열(참여대학원생)

2) 저술의 구성 및 내용

▸ 제1부는 『이담속찬(耳談續纂)』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이 저술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중국 명대(明代) 왕동궤(王同軌, 1535~1620)가 엮은 『이담』에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을 증보하여 1820년에 편찬한 속담집임.

▸ 이 저술은 글자 수에 예외도 있지만, 중국 속담 170여 항목과 우리나라 속담 240여 항목을 8자(字) 중심으로 한역(漢譯)하여 수록하고, 뒤이어서 그 의미를 풀이하여 실었음. 간결한 한역을 통해 속담을 적실하게 보여줌으로써 19세기 우리 민중의 삶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우리말 속담을 한역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요를 한시(漢詩) 절구(絶句)로 번안한 '소악부(小樂府)' 갈래와 마찬가지로 우리말이 외국어로 번안되는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역으로 우리 속담의 원형을 고구(考究)할 수 있다는 중요한 문학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

▸ 제2부는『물명고(物名考)』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 풀이와 설명을 수록한 것임. 이 책은 유희(柳僖, 1773~1837)가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과 관련 내용을 한글과 한문으로 풀이하여 1820년경에 편찬한 일종의 유서(類書: 백과사전)임.

▸ 이 저술은 국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 어휘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문학적으로는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원천인 텍스트임.

▸ 본서는 원서의 분류 체계인 유정류(有情類)・무정류(無情類)・부동류(不動類)・부정류(不情類)와 그 세부 항목인 우충(羽蟲)・수족(獸族) 등의 15개 분류를 따라 차례를 구성하였음. 이 가운데 학제 간 융・복합적 성격을 지닌 독특한 내용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지닌 물명을 중심으로 항목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음.

3) 기대효과

▸ 본 연구 성과는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공동연구 작업물로 본 교육연구팀이 기획 단계에서 의도한 교육· 연구 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성과임.

▸ 완성된 연구 결과물인『속담과 물명의 세계』는 2022년 7월 말에 도서출판 학자원에서 출판되었음. 아울러 이는 2022-2학기 학부 교과목인 <한국근대문학과고전물명의전통>에서 교재로 사용할 예정임. 이는 4단계 BK21사업의 지속과 확산을 실현 가능케 하는 증좌로 기능함.

▸ 속담은 인간의 복잡다단한 당시의 삶을 반영하고, 사물의 이름을 의미하는 물명은 지식의 근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저술에 담긴 콘텐츠는 '이야기'라는 육체의 '혼(魂)'으로서 스토리텔링의 원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음.

▸ 현대 속담과 물명은 한자와 한문이 어렵다는 현대 독자들의 선입견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임.

▸ 속담과 물명에 연관된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고전 스토리텔링에 대한 수집욕을 고취하고, 창의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한국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백과사전적 지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문학적 시도로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님.

▸ 향후 관련 미디어(회화, 조형물)에 관한 연구도 융·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개발 가능성도 충분하며, 관련 아카이브 구성에 기여함은 물론 논문이나 저술 등 관련 연구 성과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음.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1. 교육연구팀 현 교육 과정과 학사관리 장단점

■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고도로 집중된 차별화된 교육 과정

▸ 본 교육연구팀은 오랜 기간에 걸쳐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집중해왔음. 현재 교수진 대부분이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의 세부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를 토대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근대 한국어분야에 집중시켜 왔으며, 관련 전공 연구자를 배출함. 이러한 측면은 본 교육연구팀의 강점임.

■ 진로나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목 개설 및 커리큘럼 운영

▸ 수도권 대학에 비해 본 교육연구팀의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 진로와 관심사를 파악해왔음. 영화, 여성학 등의 특수 세부 분야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음. 멘토 상담을 통해 늘 학생의 진로와 관심사를 파악하고, 이에 맞춘 교육 과정 구성은 본 교육연구팀의 장점임.

■ 다양한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

▸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교육연구팀 학생 수가 많지 않기에 다양한 교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음. 이는 대학원생 확보와 관련된 문제로 학생 충원이 이뤄지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봄.

2.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주요 성과

■ 교육과 연구의 연계 시스템 강화

▸ **[랩실 운영 + 강의 → 국제학술대회 발표]** : 랩실 운영을 통해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간 학문적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강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했고, 이를 다듬어 학술지 논문 투고로 진행할 예정임.

▸ **[랩실 운영 + 강의 → 소논문 게재, 학위논문 → 단과대 최우수(1건), 장려(2건) 논문 수상]** : 랩실 운영을 통해 진행된 소논문(1건)과 석사학위논문(2건)을 배출함. 이들 논문은 2022-1 대학원 혁신 우수 논문 추천에서 2022-1학기 단과대학 최우수논문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 비록 사업팀 소속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양은 부족하나 질적으로는 뒤처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성과임.

▸ 언어 랩실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통사 세미나와 논문 작성법으로 진행됨. 이는 학문적 세미나 외에 학문적 성과를 위한 논문작성의 기술적 방법까지 고려한 이원적 진행으로 이를 통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려한 것임. 이러한 랩실 운영을 바탕으로 2022 하계 BK21 국제학술대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및 언어 랩실 소속 (참여)대학원생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음.

언어랩실	세미나 운영
고석주	논문 지도 세미나
양정석	논문 작성법 지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통사론 세미나

■ 강의 평가시스템 개편

▸ 단순히 강의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팀 전체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설문을 시행해 참여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또한 정해진 기간만이 아닌 수시로 참여자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하는 시도를 진행 중임.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은 호평을 받았음. 이는 일종의 교육과정 환류로 볼 수 있으며, 본 사업팀 교육역량 강화의 밑거름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참여대학원생 설문 조사반영현황

참여대학원생 요청 1. (2022년 2월 8일 ~ 15일)	※ **교과과정** Q : 향후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했으면 하는 과목(분야, 주제)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여성/젠더 관련 연구, 근현대 사상/이론 연구, 근현대 문화기획/문화콘텐츠 제작 현황 및 실무, 영화/연극/영상 등 다중텍스트에서의 근대문학/근대서사 스토리텔링
⇓	
요청 수용 결과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제작 현황 및 실무에 관한 프로그램** : 인큐베이팅 세미나(2022.03.23./2022.03.30.) <Feel the Rhythm of Korea를 통해 본 문화콘텐츠의 성패>(함창호) <지역 홍보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실무>(함창호)

참여대학원생 요청 2. (2022년 2월 8일 ~ 15일)	※ 교과과정 Q : 향후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했으면 하는 과목(분야, 주제)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여성/젠더 관련 연구, 근현대 사상/이론 연구, 근현대 문화기획/문화콘텐츠 제작 현황 및 실무, 영화/연극/영상 등 다중텍스트에서의 근대문학/근대서사 스토리텔링
⇓	
요청 수용 결과	**영화, 연극, 영상 등 다중텍스트와 관련한 프로그램** **: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특강(도서, 건축, 텍스트, 영화, 뮤지컬)** <더 라스트 북스토어> 정지돈(작가) 2022.03.31. <경험의 체득과 건축 서사> 임진영(건축기획자) 2022.05.12. <다시, 『토지』는 어디에 있는가? 『토지』 연구의 성취와 남은 과제> 이상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2.05.19. <영상번역: 언어와 감각의 장벽, 그 너머를 잇는 힘> 이화진(연세대학교) 2022.06.02. <뮤지컬 공연, 창작, 비평의 세계> 현수정(중앙대학교) 2022.06.09.

참여대학원생 요청 3. (2022년 2월 8일 ~ 15일)	※ 사업 프로그램 Q : 2차년도(2021년 9월 ~ 2022년 2월)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 인큐베이팅 세미나 <모든 것은 아카이브가 된다> (2021.12.29~2022.1.27)** 기존에 관심있는 주제는 아니었으나, 인큐베이팅 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학 연구자로서 '아카이빙'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는데, 한 분야 안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주셔서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문학/문화콘텐츠 전문가 양성이 BK사업의 한가지 목표이므로, 앞으로도 비슷한 분야의 전문가 특강/워크숍 등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	
요청 수용 결과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전문가 워크숍 아카이브 관련 : <아카이브 전시의 형식 탐구> 도서 출판 관련 : <더 라스트 북스토어> 건축 기획 관련 : <경험의 체득과 건축 서사> ▸ 전문가 특강 선거 기획 관련 : <세상을 바꾸는 힘, 인문학!> 영상번역 관련 : <영상번역: 언어와 감각의 장벽, 그 너머를 잇는 힘> 뮤지컬 관련 : <뮤지컬 공연, 창작, 비평의 세계> ▸ 인큐베이팅 세미나 문화콘텐츠 제작 관련 : <Feel the Rhythm of Korea를 통해 본 문화콘텐츠의 성패>, <지역 홍보 문화콘텐츠 기획과 제작 실무>

참여대학원생 요청 4. (2022년 2월 8일 ~ 15일)	※ 교과과정 Q : 향후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했으면 하는 과목(분야, 주제)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여성/젠더 관련 연구, 근현대 사상/이론 연구, 근현대 문화기획/문화콘텐츠 제작 현황 및 실무, 영화/연극/영상 등 다중텍스트에서의 근대문학/근대서사 스토리텔링
⇓	
요청 수용 결과	**여성/젠더 관련 프로그램** : 프론티어 세미나 (2022.04.07.)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자료와 이야기의 역사〉(장수희)

■ 논문 게재료 지원

▸ 장기영, 「영화 〈69세〉의 기록의 레이어를 통해 본 재현과 실재의 관계〉, 『대중서사연구』 28권 1호, 게재료 및 심사료 지급.

■ 논문작성 세미나

▸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주 대상으로 언어랩실에서는 논문작성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2021년도 2학기(2021.09.10.~2022.02.23. / 2021.09.10.~12.20.)에는 **매주** 금요일 오전(10:00~12:00)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논문 작성법 지도함.

▸ 2022년도 1학기(2022.03.11.~2022.07.19.)에는 **매주** 화요일 오전(10:00~12:00)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논문 작성법 지도

▸ 언어 랩실에서는 2022년도 1학기(2022.03.11.~2022.07.19.)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2:00~5:30) 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통사 세미나를 진행함.

기간	교수	참여대학원생	횟수	기타
2021-2학기 (9월 10일 ~ 2월 23일)	양정석	4명	12회	
2021-2학기 (9월 10일 ~ 12월 20일)	고석주	4명	15회	
2022-1학기 (3월 11일 ~ 7월 19일)	양정석	6명	35회	오전 : 논문 작성법 지도 오후 : 한국어 통사론 세미나

3.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 본 교육연구팀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시스템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음. 다만, 대학원 강의가 참여대학원생의 다양한 연구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음. 그러나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성과물이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고, 대학원혁신 최우수논문에 선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는 점은 주목할 지점임.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시스템을 지속해서 진행한다면 이러한 성과를 계속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함. 앞으로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 시스템을 이수한 이들의 학업적 성취도가 누적된다면 활발한 연구성과물 도출이 예상됨.

■ 2023-1학기 <텍스트 마이닝> 과목 개설 준비

■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 강화가 필요함. 2021년 2학기를 기점으로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충원했음.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 강화를 염두에 두고 참여교수를 선발했기에 이 부분이 강화되었음.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1.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구성

■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양성을 위한 노력

▸ 본 교육연구팀은 2014~2018년에 걸친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을 통해 근대 한국어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양성에 힘써왔으며, 근대 소설 자료집, 삽화로 보는 근대문학 E-Book, 유튜브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을 개발하여 확산시킨 바 있음. 이러한 노력을 대학원 교육으로 확산하고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한 전문가 워크숍 및 전문가 특강, 프론티어 세미나, 인큐베이팅 세미나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음.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거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 관계를 통해 산업・사회 문제 해결에 힘쓸 계획임.

■ 지역의 문화산업 및 관광 자원 활성화에 기여 / 지역의 문화적 가치 발굴 및 전통문화 계승

▸ 본 교육연구팀은 그동안 지역의 문화산업 및 관광 자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학관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본 교육연구팀은 '학역(學域) 상생'을 목표로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 및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김성연이 개설한 2021-1학기 <문화기획과 근대문화> 학부 강의에서 "인구소멸지역인 태백의 활성화를 위한 '탄광'을 주제로 한 관광 홍보 영상 기획안"을 생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관광공사는 2022년 7~9월 영상으로 제작하여 2022년 9월 말 유튜브 채널에 온에어할 예정.

▸ 위의 <문화기획과 근대문화> 강의에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 최석열 학생이 조교로 참여하여 "이론과 현장이 연계된 문화기획과 문화콘텐츠" 활동과 "지역 사회 공헌 사업"에 기여함.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4단계 BK21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은 한국관광공사와 2022년 8월 9일 협약식을 체결함. 협약서에 따르면 지역 거점 대학과 정부 기관이 양측의 자원을 협조하여 두 기관이 소재한 강원도 소외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기획했다는 의의가 있음.

▸ 근대화의 대표적인 장소였던 탄광을 배경으로 한 문학 및 예술작품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콘텐츠를 직접 생성했다는 의의가 있음.

■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적 한계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 계층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음. 이번 사업에서도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학 특강, 청소년 특강 등을 여러 차례 실시한 바 있음.

▸ 2022년 7월 7일, 7월 14일, 7월 21일, 7월 28일 4회에 걸쳐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에서 배정상 교수가 특강을 진행했음. 이는 2021년 4월 원주 미리내도서관에서 열린 <근대 한국의 일상 - 자료로 살펴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 프로그램에서 '신소설이 그려낸 근대의 여성상', '자유연애와 정사 사건'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 대중강연을 시행한 연장선에 있으며, 단기적인 특강이 아닌 연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본 사업팀과 근대한국학연구소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 주최한 <근현대 인물 열전>에서 김성연 교수가 "선교사의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함. 근대 시기 한국문학에 관한 지식을 일반인에게 전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 특강은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임.

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산학 연계 모듈 교과목 개설 및 운영

▸ 본 교육연구팀은 산학 연계 모듈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오늘날 산업 수요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다양한 실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산업 사회 수요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예정임. 또한 이를 통해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연극·뮤지컬 대본, 유튜브 콘텐츠, 게임 시나리오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에 힘쓰고자 함. 이러한 계획에 따라 영상번역, 뮤지컬, 출판, 광고 제작자 등을 초빙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함.

■ 프로젝트 모듈 교과목 「텍스트 마이닝」의 개설 및 운영

▸ 본 교육연구팀은 석사 3학기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프로젝트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자 함. 「텍스트 마이닝」은 근대 한국어문학 자료의 발굴, 수집, 정리, 분석을 위한 교과목으로, 근대 한국어문학에 기반을 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음. 석사 3학기에 필수 수강하도록 교과목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업 시작 시점에서 참여대학원생 석사 3학기가 나오는 2023년 1학기부터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임.

■ 인큐베이팅 세미나

▸ 인큐베이팅 세미나는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업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임. 이 세미나는 근대 한국어문학 관련 문화콘텐츠를 실제 제작해보거나 창업의 형태로 육성하는 모임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그 첫 시도로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 함창호 차장을 초빙해 요즘 젊은 세대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한국 홍보 영상 및 지역 홍보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무에 관한 인큐베이팅 세미나를 2회에 걸쳐 진행함. 참여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학부생에게도 호응을 얻은 바 있음.

■ 근대 한국어문학 학술 답사

▸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문학관, 박물관,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장소의 현지답사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고, 지역 관광 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동문 홈커밍 특강

▸ 문화기획자, 영화제작자, 영화사, 방송작가, 시나리오작가, 공연예술기획자, 잡지출판기획자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동문 선배들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점차 다양한 분야의 동문 선배를 섭외해 강연 및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임.

■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관련 학술모임 및 사회단체 활동 지원

▸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학술모임 및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문학관, 도서관,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 및 사회 문제와 연계한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 소수자, 젠더문제, 다문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학술모임 및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본 사업팀을 주축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MOU를 체결했기에 이와 관련한 여러 활동이 기대됨.

■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인권, 교육, 생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함.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함. 본 교육연구팀에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관계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 ‘언어 랩실’ 담당 교수 주도하에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 관련 및 학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어 랩실 소속 대학원생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3. 주요 성과

■ 지역 특강 : 본 사업팀은 2021년부터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지역 특강에 참여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 2021년도에 원주시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인문학 특강(2회)에 참여했던 것을 2022년도에는 4회로 늘려 배정상 교수가 진행함. 본 사업팀과 근대한국학연구소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와 공동 주최한 <근현대 인물 열전>에서 김성연 교수도 ‘근현대 인물 열전 특강’에 참여했음.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특강에 참여할 예정임.

▸ 7월 7일 : 근대 인문학 강연, “신소설과 근대적 여성 주체의 탄생”(배정상)

▸ 7월 14일 : 근대 인문학 강연, “한일 강제 병합과 소설의 대중화 전략” (배정상)

▸ 7월 21일 : 근대 인문학 강연,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배정상)

▸ 7월 28일 : 근대 인문학 강연, “강명화 정사 사건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배정상)

▸ 8월 4일 : 근현대 인물 열전, “선교사의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김성연)

■ 2022년도 청년예술인지원 공모 최종 선정

▸ 강원도의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 및 지원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창작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임.

▸ 강원도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이 사업에서 참여대학원생 장기영이 "배리어프리(배리어컨셔스) 공연 작품 평론집 발간"으로 문학 부문 직접 사업비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음.

▸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제도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배리어프리에 관한 공연 작품 평론집 발간을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영상번역, 폐쇄 자막(CG), 음성 해설(AD)과 관련한 <전문가 특강>도 마련해 참여대학원생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교육의 연장을 시행하기도 했음.

4.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 비대면 상황에서도 본 교육연구팀은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했음. 1차년도 지역 특강의 연장선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지속했으며, 더불어 근현대인물열전 특강에도 참여해 지역 격차 및 교육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인문학, 근대라는 시기의 지식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실시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이바지함.

본 교육연구팀의 기획 및 프로그램은 현재 상황에 맞춰 온라인 방식을 통한 지역 특강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음. 대면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오면 이런 취약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1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21년 2학기	3	3	3	9
	2022년 1학기	1	5	2	8
	계	4	8	5	17
배출 (졸업생)	2021년 2학기	3	0		3
	2022년 1학기	0	0		0
	계	3	0		3

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1. 우수 대학원생 확보 계획

■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 강화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을 강화하여 특성화 인재를 지속해서 발굴, 육성하고자 함. 해당 과정

은 대학원 교과과정에 학부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를 개편하여 현재 본 학과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학부 인력을 대학원 자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임.

▸ 문화기획 트랙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개설한 학부과목 <문화기획과 근대문화>를 진행함. 그 결과 <문화기획과 근대문화> 과목 수강생 최지원 학생이 2022-2학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지원하여 합격함.

■ 대학원 MTL 랩과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학부 과정과 대학원 랩을 연동하고자 하는 시스템임. 본 교육연구팀은 대학원생과 학부생 간 연계과정의 일환으로 '소모임'을 조직해 활동하고 있음. 이러한 소모임 활동을 통해 우수 학부생을 대학원으로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 학위논문 대체 실적 인정을 통한 유연 학위제의 도입

▸ 학위논문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졸업 요건을 혁신하여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입 장벽을 허물고자 함.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대신에 근대 한국어문학 관련 자료집이나 번역서 출간, 시나리오나 영상물과 같은 문화콘텐츠 등 대체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임. 이를 위해 공모전 수상 실적 반영 여부, 영상 콘텐츠 심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초빙, 전체 대학원생 중 유연 학위제 대상자 비중 설정 등 엄정한 심사 요건을 마련할 계획임. 실제로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참여대학원생 평가 요건 중 공모전 응모 및 수상 등의 항목을 마련해 유연 학위제를 준비하고 있음.

■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 학부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환학생 제도를 대학원 차원의 교류 협정으로 확대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임. 본교의 국제교육원과 글로벌 엘리트 학부를 활용해 학부 유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원 진학으로 유도하고자 함. 지속해서 외국인 유학생이 유입되고 있기에 앞으로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기대됨.

2. 우수 대학원생 지원 계획

■ 특성화 인재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MTL 교과과정 운영

▸ 실무 프로젝트 기반 교과목 운영

▸ 국제화 과정 프로그램 운영

▸ 유연 학위제 도입

▸ 우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

■ 연구 성과 도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프론티어 세미나 : 신진 연구자를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대학원 랩과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 가동

▸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통한 자료집 발간, 근대 시기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대 시기

외국어 자료의 한글 번역 등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임. 미디어 랩실에서는 1920년대 매일신보 소재 괴담을 수집, 정리,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추후 관련 자료집을 출간할 예정임. 언어 랩실에서도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에 등재한 글을 순한문, 국한문, 일본어로 원문 텍스트를 구축하고, 이를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이 작업의 성과물을 자료집 발간을 기획하고 있음.

▸ 텍스트·미디어 랩실에서는 김형태 참여교수의 지도로 장기영, 최석열 참여대학원생과 『속담과 물명의 세계』를 출간했음. 이는 대학원 교과목 <근대계몽기시가연구>에서 이뤄진 논의를 학술적으로 확장한 성과물임. 이를 통해 텍스트와 미디어의 융·복합적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근대 한국어문학 학술 답사 : 본 교육연구팀은 지역 문학과, 박물관,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장소의 현지답사를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고, 지역 관광 자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술 답사를 기획함.

▸ 한국관광공사와 MOU 체결 이후 그 연장선에서 낙후 지역 관광 특성화를 위한 태백 지역 답사도 예정 중.

■ 논문작성을 위한 멘토링 세미나

▸ 대학원 졸업생 선배가 멘토가 되어 대학원생의 학술논문 작성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멘토링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음. 자료의 수집과 정리, 논문 기획, 연구사 검토, 목차 작성, 주석 작성, 집필과 퇴고, 초록 작성, 심사평 분석 및 보완에 이르기까지 학술논문 작성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함. 멘토링 세미나를 통해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논문 기획 단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임.

■ 논문계획서 발표 세미나

▸ 참여대학원생 각자 연구 상황 및 계획에 관한 발표를 통해 서로의 연구 분야에 관한 자료 공유 및 전공 교수의 조언을 통해 학술논문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도함. 이는 기존 '논문작성을 위한 멘토링 세미나', '논문 지도 세미나', '월례 논문발표회' 만으로는 부족한 세밀하고 정밀한 지도를 보충하기 위한 시도였음.

■ 우수 논문 지원

▸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논문게재 시 심사비와 게재료를 지원함. 그리고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우수 논문 작성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2022-1학기 기준으로 8월에 성과급을 지급함. 사업팀에서는 학술지 논문 심사료·게재료를 지급하고 있고, 참여대학원생 평가지표에 논문게재에 관한 항목을 넣어 추후 인센티브 지급 시 반영하고 있음. 앞으로도 참여대학원생의 우수한 연구성과물을 지속적 도출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임.

■ 사업 참여대학원생에게 기숙사 제공

▸ 기숙사 사용을 원하는 참여대학원생을 대학원 본부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음.

■ 대학원생 합동연구실 배정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전원에게 합동연구실을 배정하여 연구 환경조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함. 참여대학원생 전원 합동연구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본교에서도 합동연구실 지원금을 마련해 최적의 연구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해외연수 기회 제공

▸ 동아시아의 근대한국학 관련 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대학원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은 해외연수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임.

3. 주요 성과

■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신입생 입학

▸ 문화기획 트랙 부분 대학원생 유치를 위해 개설한 학부과목 <문화기획과 근대문화>를 수강한 최지원 학생이 2022-2학기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지원해 합격함.

■ 4단계 BK21사업 설명회

▸ 2021.09.06. 4단계 BK21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음.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함. 또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대학원생의 편의 제공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함.

▸ 2022.02.08. 참여대학원생 및 비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4단계 BK21사업 설명회를 진행함. 4단계 BK21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참여대학원생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의 학업 열정 고취와 학부생과의 학업 연계 활동에 관한 조언을 했음.

■ 대학원 설명회

▸ 2022.03.14.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함.

▸ 2022.03.15.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함.

▸ 2022.03.16.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함.

▸ 기존에는 특정 날짜를 지정해 대학원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전체 학부생이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는 학부생 대상 온라인 강의실에 접속해 학부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설명회를 통한 안내 및 4단계 BK21사업 전반에 관한 소개를 진행하여 우수한 학부생을 대학원으로 유치하고자 했음.

■ 대학원-학부 연계 소모임 활동

▸ 문예리뷰그룹 :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함께 모여 소설, 영화, 공연예술, 비평텍스트 등 다양한 문예 작품을 '리뷰'하고 이를 공유하는 모임임. 현재 2기 운영을 끝내고 3기 회원 모집 및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음. 매번 결과물을 제작하는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대학원-학부 연

계 소모임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하고 있음.

▸ 문예리뷰그룹 활동 상황

일정	회의 내용	참여자
2021.12.23.(목)	▸ 모임의 성격, 일정, 진행방식 등 논의	강서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수민, 이종훈, 장기영, 전의주, 최지원, 채예람
2022.1.5.(수)	▸ 리뷰 대상 텍스트 및 아이디어노트 공유 참석자 전원 발제 ▸ 리뷰 대상 텍스트 선정 과정과 확장에 대한 피드백 공유 ▸ 추후 합평 일정 및 진행방식 논의	강서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수민,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2022.1.19.(수)	1차 수정본 발제 (이종훈, 박서영) 및 합평 ▸ 이종훈: 소설 <이방인> 리뷰 ▸ 박서영: 드라마 <태양의 후예> 리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2022.1.26.(수)	1차 수정본 발제 (권기연, 신정은, 채예람) 및 합평 ▸ 권기연: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리뷰 ▸ 신정은: 영화 <이터널스> 리뷰 ▸ 채예람: 시집 <이 시대의 사랑> 리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2022.2.9.(수)	1차 수정본 발제 (김영하, 장기영) 및 합평 ▸ 김영하: 드라마 <지옥> 리뷰 ▸ 장기영: 연극 <김수정입니다> 리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2022.2.23.(수)	1차 수정본 발제 (최지원) 및 합평 최종 발제 (이종훈, 박서영) 및 합평 ▸ 최지원: 소설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리뷰 (1차) ▸ 이종훈: 소설 <이방인> 리뷰 ▸ 박서영: 드라마 <태양의 후예> 리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2022.3.9.(수)	최종 발제 (권기연, 채예람) 및 합평 ▸ 권기연: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 리뷰 ▸ 채예람: 시집 <이 시대의 사랑> 리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2022.3.16.(수)	최종 발제 (김영하, 장기영, 신정은, 최지원) 및 합평 ▸ 김영하: 영화 <벌새> 리뷰 ▸ 장기영: 연극 <김수정입니다> 리뷰 ▸ 신정은: 영화 <이터널스> 리뷰 ▸ 최지원: 소설 <뉴서울파크 젤리장수 대학살> 리뷰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2022.4.5.(화)	최종 탈고본 체크 및 문집 발간 관련 논의 2기 모임 진행방식에 대한 피드백 3기 진행방식 변경에 관한 논의	김영하, 권기연, 박서영, 신정은, 이종훈, 장기영, 최지원, 채예람
비고	▸ 참여대학원생: 장기영, 채예람 / 대학원생: 신정은 학부생: 강서린, 권기연, 박서영, 이수민, 이종훈, 전의주, 최지원 / 졸업생: 김영하	

■ 대학원생 세미나

▸ 언어 랩실 소속 대학원생이 주축이 된 '언어 스터디'를 진행. 2022년 4월 ~ 5월 동안 매월 4회에 걸쳐 진행됨. 각자 논문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서로 검토 및 조언하는 스터디로 이를 통해 소통하며 교류하는 학문의 장을 구축함.

■ 프론티어 세미나

▸ 2021.11.12. 조은애 <디아스포라 위도 - 남북일 냉전 구조와 월경하는 재일조선인 문학>

▸ 2022.04.07. 장수희 <일본군 '위안부' 서사 자료와 이야기의 역사>

▸ 2022.05.13. 오태영 <잔여와 잉여>

■ 논문계획서 발표 세미나

▸ 2022.02.18. 신정은, 장기영, 채예람의 학술논문 계획 및 세부 진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참여교수 한수영, 김성연, 배정상이 참석해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학술논문 지도를 통해 명확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한 세미나였음.

■ 참여교수 멘토링 및 면담

▸ 본 교육연구팀은 랩실 별 담당 교수가 참여대학원생을 비롯한 대학원생과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연구 및 생활 전반에 걸친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사제 간의 인간적 교류 및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관계를 지속하고 있음.

▸ 멘토링 및 면담 내역

MTL	면담자	대상자	방식	면담내용	세부내용	일시	비고
Text	한수영	장기영	대면 지도	논문지도	영화비평공모전 출품작 검토/수정	2021.9.28	
Text	한수영	최석열	대면 지도	논문지도	석사논문지도	2021.10.7	
Text	한수영	최석열	대면 지도	논문지도	석사논문 수정/보완 지도	2021.11.9	
Text	한수영	최석열	대면 지도	논문지도	석사논문 종심 제출본 최종검토	2021.12.2	
Text	한수영	장기영	대면 지도	논문지도	국립극장 공모 연극평론 수상 격려 및 학술지 투고논문 검토	2022.1.12	
Text	한수영	김영하 (전참여대학생)	대면 지도	진로지도	석사학위 받은 이후의 활동 및 향후 진로 계획 상담	2022.3.29	
Text	한수영	최석열	대면 지도	논문지도	학술대회 발표 논문 지도	2022.4.19	
Text	한수영	장기영	대면 지도	논문지도	학술지 투고논문 지도	2022.4.20	
Text	한수영	신정은(전 BK참여학생), 채예람, 장기영	대면 지도	논문지도	준비하고 있는 학술대회 및 학술지 투고논문 지도	2022.5.26	
Text	한수영	장기영	대면 지도	해외연수 상담	일본연수생활에 대한 조언 및 연구지도	2022.6.24	

MTL	면담자	대상자	방식	면담내용	세부내용	일시	비고
Text	김형태	정대혁	대면 지도	박사학위 논문지도	고소설 <소무충절록> 연구 논문 차례 수정 논의	2021.10.06.	

Text	김형태	최석열	대면 지도	석사학위 논문예심논의	이효석 장편소설『벽공무한』 연구	2021.10.12.	
Text	김형태	장기영	대면 지도	저술집필지도	『속담과 물명의 세계』 색인 작업 논의	2021.11.29.	
Text	김형태	박창균 정대혁	온라인	박사학위 논문지도	근대계몽기 가사 연구 ▸ 논문 구성 및 차례 논의 고소설 〈소무충절록〉 연구 ▸ 논문 제1장 내용 수정 논의	2022.01.04.	
Text	김형태	장기영 최석열 이윤조	대면 지도	저술집필 지도 및 학업지도	『속담과 물명의 세계』 색인 작업 논의	2022.01.26.	
Text	김형태	박창균	대면 지도	박사학위 논문지도	근대계몽기 가사 연구 ▸ 논문 구성 및 차례 수정 논의	2022.03.07.	
Text	김형태	정대혁	온라인	박사학위 논문지도	고소설 〈소무충절록〉 연구 ▸ 논문 제1장 내용 수정 논의	2022.03.21.	
Text	김형태	정대혁	온라인	박사학위 논문지도	고소설 〈소무충절록〉 연구 ▸ 논문 제2장 내용 논의	2022.03.29.	
Text	김형태	최석열	대면 지도	저술집필 지도	『속담과 물명의 세계』 색인 작업 논의	2022.04.07.	
Text	김형태	장기영 최석열	대면 지도	저술집필 지도 및 학업지도	『속담과 물명의 세계』 색인 작업 논의	2022.05.11.	
Text	김형태	정대혁	온라인	박사학위 논문지도	고소설 〈소무충절록〉 연구 ▸ 논문 제2장 내용 논의	2022.05.31.	
Text	김형태	장기영 최석열	온라인 (이메일)	저술집필 지도	『속담과 물명의 세계』 색인 작업 수정 논의	2022.06.09. 2022.06.10.	
Text	김형태	최석열 이윤조	대면 지도	학업 및 생활 지도	소논문 및 저술 집필 진행 상황 점검 및 생활 지도	2022.07.05.	
Text	김형태	이광주	온라인	박사학위 논문지도	근대계몽기 시조연구에서 남북한 성경의 문학적 연구로 주제 변경 논의	2022.08.15.	
Text	김형태	박창균 정대혁 이윤조	온라인	박사학위 논문지도 소논문투고 지도	논문제출시한 연장논의 고소설 〈소무충절록〉 연구 ▸ 논문 제2장 내용 수정 논의 근대계몽기 시가에 구현된 인물(人物) 유형과 주제의식 연구	2022.08.16. 2022.08.17.	
Text	김형태	최석열 이윤조	대면 지도	학업 및 생활 지도	소논문 및 저술 집필 진행 상황 점검 및 생활 지도	2022.08.26.	

MTL	면담자	대상자	방식	면담내용	세부내용	일시	비고
Media	김성연	장기영	비대면	논문지도	학술지투고논문지도	2021.11.3	
Media	김성연	장기영	대면	논문지도	투고논문 및 투고비평문 지도	2021.11.17	
Media	김성연	장기영	대면	진로지도	연구지원공모 상담	2021.12.22	
Media	김성연	장기영	대면	진로지도	해외어학연수 상담 및 관계자 주선	2022.7.5	
Media	김성연	장기영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최예람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신정은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정예은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이윤조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ZHAO ZHE	비대면	논문지도	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LIU YILIN	비대면	논문지도	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최석열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23	
Media	김성연	장기영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30	
Media	김성연	최예람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30	
Media	김성연	신정은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30	
Media	김성연	정예은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30	
Media	김성연	이윤조	비대면	논문지도	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지도	2022.6.30	
Media	김성연	ZHAO ZHE	비대면	논문지도	논문지도	2022.6.30	
Media	김성연	LIU YILIN	비대면	논문지도	논문지도	2022.6.30	
Media	김성연	최석열	대면	논문지도	발표논문 디벨로핑 방향 상담	2022.8.4	
Media	김성연	ZHAO ZHE	비대면	진로지도	세부 전공 및 학위논문 주제 상담	2022.7.21	

MTL	면담자	대상자	방식	면담내용	세부내용	일시	비고
Media	배정상	최석열	대면	논문지도	학위논문에 관한 지도	2021.10.27.	
Media	배정상	최석열	대면	논문지도	1차 면담에 이은 학위논문 지도	2021.11.04.	
Media	배정상	최석열	비대면	상담	자료집 제작과 관련한 상담	2022.04.17.	

MTL	면담자	대상자	방식	면담내용	세부내용	일시	비고
Language	양정석	정민지, TANHONGDALETHITHAM, TENGYULONG	비대면	논문지도	세미나와 면담을 병행함	2021.09.10.~ 2022.02.23.	
Language	양정석	정민지, TANHONGDALETHITHAM, TENGYULONG ,ZHOUFANGZHI, ZHAO ZHE, LIU	비대면	논문지도	세미나와 면담을 병행함	2022.03.11.~ 2022.07.19.	

		YILIN, LIUYI					
Language	고석주	정민지, 정예은, TANHONGDA, TENGYULONG	비대면	상담	세부 전공 및 논문지도	2021.09.10.~ 2021.12.20.	

4.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 본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은 큰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 꾸준한 신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함. 사업 초기 단계를 지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이를 통해 더 많은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꾸준히 교육연구팀의 성과를 누적하고, 교육연구팀을 학부생에게 알리는 작업과 해외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는 노력이 수반되도록 노력할 예정임.

2.3 참여대학원생의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21년 8월 및 2022년 2월 졸업한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부) 참여대학원생 취(창)업률 실적(단위: 명, %)

구 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단위: 명, %)						취(창)업률(%) (D/C)×100
		졸업자 (G)	비취업자(B) 진학자 국내	비취업자(B) 진학자 국외	비취업자(B) 입대자	취(창)업대상자 (C=G▸B)	취(창)업자 (D)	
2021년 8월 졸업자	석사	0				0		0
	박사	0						
2022년 2월 졸업자	석사	3	2			1	0	0
	박사	0						

■ 본 교육연구팀 소속 참여대학원생 중 졸업생 현황

▸ 2022년 2월 : LIUYI, LIANG JIAMING, 최석열 석사 졸업

3. 참여대학원생 연구실적의 우수성

①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 참여대학원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 참여대학원생 학술지 논문게재, 대학원 혁신 최우수논문 수상

▸ 장기영, 「영화 <69세>의 기록의 레이어를 통해 본 재현과 실재의 관계」, 『대중서사연구』 28집 1호, 2022년 2월 28일.

본 연구는 ‘재현’ 행위의 근원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기록’이라는 모티프에 주목하여 영화 <69세>를 분석했음. 재현을 허구의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재와 어떠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아가 재현이 실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임. 본 연구는 재현이 실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실재를 직시할 수 없게 하는 가림막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착목함.

특히 본고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재현물 ‘안팎’의 기록들을 함께 바라보는 교차적 시선임. 우선, 본 연구자는 영화 <69세>를 주인공으로서 노년여성 캐릭터가 자신의 고통을 기록하는 주체로 그려내는 작품으로 바라보았음. 즉 자기 서사를 가질 수 있는 인물을 묘사함으로써 노년여성 인물 묘사의 전형성을 극복하는 것임. 동시에, 영화 <69세>의 온라인 평가플랫폼에 드러난 평가 양상을 분석하고, 악성댓글들의 유형을 파악하여 이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이 재현물이 보인 ‘변주적’ 재현 현상에 대한 반작용 현상까지 살핌. 이렇게 영화 ‘바깥’의 기록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바깥의 기록들(악성댓글)들이 타인을 오로지 타자로만 재현하는 글쓰기를 표상하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재현에서 노년여성의 고통은 다시 비실재의 영역으로 회수될 수 있다. ‘재현’은 다양한 개인들이 자기 서사를 가질 수 없는 ‘뭉뚱그려진 집단’으로 호명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재했던 타인들의 고통 곧 그들의 ‘구체적인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만들기도 함. 본고는 재현의 이러한 양가적 특성을 모두 염두에 두며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했음.

본 사업팀은 뉴노멀의 자리를 논하는 새로운 시대에서, 경제적/사회적 등 실용 가치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재현’, ‘문학’, ‘한국학’ 등의 존재와 그 의미를 재고했음. 이러한 시대 환경 속에서 한국어문학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는, 뿐만 아니라 실재의 것들과 소통하는 전문 학술연구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본 논문은 이 교육적 목표 아래 도입한 MTL 교과과정 시스템 중 ‘미디어’랩과 ‘텍스트’ 랩에서의 학습 내용들을 융합한 참여대학원생의 결과물임. 가장 근대적인 재현 매체로서의 영화, 그리고 이 영화 매체를 전유하는 가장 현대적 매체인 댓글이라는 온라인 글쓰기 양식을 검토했음. 또한 이 미디어들을 텍스트 비평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미디어 연구에서의 텍스트 비평이 가지고 있는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음.

본 연구는 2022년 1학기 대학원 혁신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그 학문적 우수성을 입증받았음. 본 사업팀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큼.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러한 우수 성과물이 축적될 것으로 기대함.

■ 참여대학원생 학위논문

▶ LIUYI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어 ‘-지’ 접속문과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에 관한 대조 연구>(2022.02.), 대학원 혁신 장려상 수상

본고에서는 한국어 ‘-지’ 접속문과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에 관한 대조 연구를 수행하였음. 한국어 접속 어미 ‘-지’는 2가지 용법, 즉 대립 관계 접속과 전환 관계 접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대립 관계는 선행절과 후행절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대립하는 것임. 전환 관계는 선행절과 후행절 문장의 의미가 서로 완전히 대립하지 않고 부분 대립하는 것임. 본고에서는 한국어 접속 어미 ‘-지’를 가지는 다양한 형식의 접속문을 검토하고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을 제시하여 분석하였음.

한국어 ‘-지’ 접속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는 대립 관계, 전환 관계로 나뉘는데, 대립 관계, 전환 관계의 경우 모두 접속 어미 ‘-지’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접속 요소는 ‘而’이다. 중국어 접속 요소 ‘而’의 통사 범주는 접속사임. 이러한 논지를 펼친 결과 한국어 ‘-지’접속문과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접속문은 선행절 서술어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고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또, 한국어 ‘-지’접속

문에서 선행절 서술어 자리에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아니다’가 제약 없이 모두 나타날 수 있음과, 선행절 서술어가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 ‘아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후행절 서술어가 명령형, 청유형인 것은 제약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의 표현에서도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임.

본 석사학위 논문 역시 2022년 1학기 대학원 혁신 논문 장려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음.

▶ **최석열 석사학위 논문 : <이효석 장편소설『벽공무한』연구>(2022.02.), 대학원 혁신 장려상 수상**

본고는 이효석이 일제 말기 장편소설 『벽공무한』을 통해 도시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품 속 배경 ‘하얼빈’을 통해 도시 문제들을 해소·고발하고자 했던 작가의 미학적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작품 속에 나타나는 도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사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벽공무한』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단편이자 ‘하얼빈’이라는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하얼빈」을 함께 분석함. 또한 이 논문은 도시 문제들을 해석하기 위해 벤야민의 ‘산책자’ 이론을 사용하였음.

이 논문이 이효석의 『벽공무한』을 다시 읽으며 작품에 나타난 ‘하얼빈’의 공간적 표상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효석의 일제 말기 작품을 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읽기 위함임. 또한 도시에 만연해 있는 문제에 대한 사유를 보다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함이며, 당시 이효석이 바라봤던 1940년대 만주국의 하얼빈과 그 속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작가의 의식은 여러 도시 문제들을 포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또한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한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의 여러 요소와 ‘산책자’ 이론 역시 동일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이효석의 도시 관련 텍스트는 후대의 독자들에게도 도시의 스펙터클하고 역동적인 모습에 매혹되는 것에서 벗어나 도시가 은폐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주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이효석의 도시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은 후기 자본주의 도시의 환상과 문제들을 해석해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근대문학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비단 이효석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근대문학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독(再讀)하는 것은 근대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필요함. 본 학위논문은 사업팀의 아젠다에 적합한 연구성과물이며,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혁신 논문 장려상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음.

▣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 참여대학원생 논문의 양적, 질적 우수성 향상을 위한 연구 풍토를 조성할 것임. 이를 위해 대학원생 논문발표회, 논문계획서 발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그 결과 2022년 1학기 대학원 혁신 최우수논문 및 장려상을 받았음. 앞으로 우수한 논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함.

■ 우수한 논문 발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고학기 참여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논문의 질적 우수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며, 사업팀 공동 협치 연구를 통해 많은 연구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참여대학원생이 타 사업단(팀)에 비해 적어 연구성과물의 양적 우수성이 다소 미흡함. 사업팀 교육 시스템인 MTL시스템을 활발하게 운영한 결과 연구성과물의 질적 우수성은 입증되고 있음. 앞으로 연구성과물의 양적 향상을 추구할 계획임.

■ 연구팀 자체적으로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연구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며, 우수한 연구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②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1. 참여대학원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 2022 하계 BK21 국제학술대회 <근대 미디어의 전환과 문자, 텍스트, 재현의 변이> 참여

▸ 2022년 7월 29일 (금),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4단계 BK21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함.

2부-A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14:00~14:40	정민지 (연세대학교)	한국어 접속문의 분류	정예은(연세대학교)
14:40~15:20	LETHITHAM (연세대학교)	한국어와 베트남어 이중주어문의 대응 관계 고찰	양정석(연세대학교)
15:20~16:00	TANHONGDA (연세대학교)	한국어 명시어 구조 접속문과 중국어 접속문의 대응 관계 고찰	왕례량 (중국 사천외국어대)
16:00~16:40	TENG YULONG (연세대학교)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목적어문의 대응 관계 검토	임문연 (중국 강서사범대학)

2부-B

	발표자	발표제목	토론자
14:00~14:40	채예람 (연세대학교)	‘정동’의 텍스트『토지』	박상민 (강남대학교)
14:40~15:20	최석열 (연세대학교)	『토지』에 나타난 간도 ‘용정’의 의미	이상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5:20~16:00	신정은 (연세대학교)	1950년대 중후반 양공주 재현의 특수성	손혜민 (연세대학교)
16:00~16:40	이윤조 (연세대학교)	근대계몽기 시가에 구현된 인물(人物) 유형과 주제의식 연구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박수진 (한양대학교)

▸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전환과 문화적 기록/재현/소통의 변화>,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의 대조 연구>, <근대 서사의 내면, 장소, 소리>로 구성되었음. 일본 세이난가쿠인대학교, 유엔대학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및 노스웨스턴대학교, 중국 사천외국어대학교, 강서사범대학교 등 외국 대학 연구자와 국내 연구자 및 본 사업팀 참여대학원생이 모여 세션별로 열띤 논의를 펼쳤음. 이러한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해 연구의 지평과 인적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학술대회 참여를 계획할 예정임.

4. 신진연구인력 현황 및 실적

1. 우수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계획

■ 2021년 3월 1일 신진연구인력 1명 선발 및 계약

■ 신진연구인력은 만화 서사 전공자로 본 교육연구팀의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이라 판단해 선발함. 앞으로 미디어, 대중문학, 대중문화 관련분야와 관련한 업무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 신진연구인력 지원실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적정 보수 및 연구환경 제공

▸ 4대 보험을 포함한 연 42,840,000원의 급여 제공

▸ 약 25.92㎡ 크기의 연구실 제공

▸ 연구에 필요한 기기(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책상, 의자, 사무용품) 제공

▸ 학과 도서 대여 지원

■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신진연구인력에게 보장되는 강의 시수 제공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대중문학의 이해> (주 6시간) 과목 제공

▸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대중문학의 이해> 과목을 LT(Learning by Teaching) 교육과정 개발 운영으로 개편함

▸ 해외 학술대회 경비 지원

▸ 학술・연구 활동 참여 보장

① 한국문학연구학회 총무이사 활동

② 만화진흥원 만화포럼 위원 활동

③ 2021년 한국만화박물관 소장자료 연구 및 구술채록 연구 용역 참여

④ 한국만화웹툰학회 편집이사 활동

■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성과

▸ 학술지 논문게재 : 고훈, 「1930년대 무협소설 연구 - 강호기협전과 무술원조 중국외파무협전을 중심으로」, 『중앙어문』 제90집, 2022, 6.

3. 신진연구인력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 신진연구인력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공간을 마련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학교 차원에서 신진연구인력만 활용 가능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 있음. 추후 공간 확보 이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기대됨.

■ 현재 본 교육연구팀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 아젠다인 '근대한국어문학'에 걸맞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1930년대 한국의 무협 소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음. 1930년대 초반 중국에서도 새로운 장르였던 무협 소설을 빠르게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신장르 소개 및 대중문학의 영역을 넓혔던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고, 당시 무협 소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한국 무협 소설 연구의 새로운 시발점을 마련하는 의의가 있음. 또한 당대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해 무협 소설과

독립운동의 연관성을 밝히는 작업도 진행 중임. 이 연구는 연구재단 학술 등재지『중앙어문』90호에 게재되었음. 이러한 연구는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에게 대중문학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할 기회를 마련하고, 새로운 장르에 관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님. 또한 대중문학, 미디어, 매체, 대중문화 분야로의 연구 분야 확장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발이기에 추후 본 교육연구팀의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더불어 산학연계를 통한 실무 필드에서의 활동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음.

■ 2차년도 연구 성과가 사업팀의 아젠다인 '근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면, 이후에는 문화콘텐츠 관련분야의 연구도 진행 중임. 요즘 주목받고 있는 '웹소설'분야에서 볼 수 있는 '혼종' 장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OSMU의 성공사례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보여주는 웹소설이 여러 하위장르의 혼종으로 인해 거듭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을 여러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그 현상에 따른 장르적 특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웹소설 개별 작품이나 하위장르 특성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이러한 현상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판단됨. 이러한 연구 역시 문화콘텐츠 분야에 주목하고 있는 본 사업팀의 연구 방향과도 잘 합치되며, 참여대학원생에게도 학문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연구라 판단됨. 지속해서 사업팀의 방향과 일치하는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1. 참여교수 교육역량 대표실적

■ 김성연 : 근대문학과 제도

■ 과목 정보 : 2022-1학기 개설 / 학정번호 (KLL7030-MM) / MTL 중 미디어랩 과목

■ 과목 개요 : 이 과목은 근대 시기를 배경으로 한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작품을 강독함. 연재물, 단행본, 만화, 드라마, 번역본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 재생산되어 온 <토지>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함. 개화기와 근대가 현대에 재현되는 방식의 정치성과 미학을 밝히고자 함.

■ 과목 목표 : 학생들은 교수자의 지도에 따라 개인별 주제를 잡고, 이를 중심으로 한 연구논문을 작성해 보려 함. 선행연구와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인지하며 본인의 리포트를 완성함. 이를 세미나를 통해 발전시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험을 갖으려 함. 이후 논문 형식으로 완성하여 학술지 투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과목 성과 :

① 탁월한 작품성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사실상 옛 문장과 긴 분량으로 학생들의 접근성이 어려웠던 작품 <토지>의 1, 2부를 강독함.

② 여러 분과학문 전공학생들이 함께하여 고전문학, 국어학, 현대문학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활용한 작품 접근을 진행함.

③ 수강생/참여대학원생 3인이 과제물을 토대로 2022년 7월 29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함(신정은, 채예람, 최석열).

④ 미디어 간 차이에 주목한 "토지 오디오북"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3년 1월 학술대회에 발표 예정(장기영).

■ 추후 계획 : 관련 주제로 열리는 2023년 1월 학술대회에서 해당 리포트를 발전시키는 발표를 지속할 예정(장기영, ZHAO ZHE, 최석열 등)

6. 교육의 국제화 전략

①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 본 교육연구팀에는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소속되어 있음. 특히, 중국의 연변대학과의 MOU를 통해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였으며, 체계적인 개인별·수준별 맞춤 지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 본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현황은 위의 표와 같음. 2021-2학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주경뢰, 곡성남, ZHAO ZHE)이 입학했으며, 2022-1학기에는 LIYU 학생이 박사과정에 참여했고, 2022-2학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입학 예정임.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꾸준하게 있으며, 이 인적자원을 본 사업팀 아젠다 및 연구 방향에 맞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해 지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언어랩실 담당 교수인 양정석 교수는 언어랩실 소속 대학원생과 함께 매주 논문 작성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은 곧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예정임.

▸ 2021.09.10.~2022.02.23. 매주 금요일 오전(10:00~12:00) : Zoom을 통한 비대면 논문 작성법 지도

▸ 2022.03.11.~2022.07.19. 매주 화요일 오전(10:00~12:00) : Zoom을 통한 비대면 논문 작성법 지도

▸ 언어랩실 담당 교수 고석주 교수도 언어랩실 소속 대학원생을 지도했음 : 2021.0909.~2021.12.20. 매주 수요일 대학원생 지도.

▸ 이러한 논문 작성법을 주기적으로 진행한 결과 2022 하계 국제학술대회에 4명(정민지, LE THI THAM, TENG YULONG, TANHONGDA)이 발표를 1명이(정예은) 토론에 참여했음.

2021.09. ~ 12.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과정	MTL 소속
1	TANHONGDA	중국	박사	Language
2	TENGYULONG	중국	박사	Language
3	LIUYI	중국	석사	Language
4	LIANG JIAMING	중국	석사	Language
5	NIMENGYUAN	중국	석사	Language

2022.03. ~ 08.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과정	MTL 소속
1	TENGYULONG	중국	박사	Language
2	LIUYI	중국	박사	Language
3	TANHONGDA	중국	박사	Language

■ **해외학자(전임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등 포함) 활용 계획 및 역할**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해외 동문 교수 멘토링 특강'을 지속해서 진행해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외에도 국내 참여대학원생을 위한 해외학자 활용 계획으로 '해외 한국 학자 특강'을 기획해 진행했음. 우수한 해외학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확장 및 연구 능력 신장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근대한국학연구소 HK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해외학자 초청도 계획 중임. <한국 근대소설 비평의 영어 번역본 출판 과정에서의 문화번역의 문제에 관한 한국문학 소장학자와의 대담>, 양윤선(보스턴대학)

■ **대학원생 장·단기 해외연수 현황 및 계획**

▸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 장기영 학생은 "2022 일본국제교류기금 전문일본어연수 문화·학술 전문가 코스"에 합격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단기 해외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Ⅲ 연구역량 영역

□ 연구역량 대표 우수성과

▣ 참여교수 대표 우수성과

■ 배정상, 『근대 미디어와 한국문학의 경계』, 소명출판, 2022.

▸ 2022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이 책은 근대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류 문단에 편입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학 양식을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 이 책은 근대문학에 접속하는 또 하나의 코드로 미디어(media)를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근대의 문학이 새롭게 형성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근대 시기 원문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근대 시기 대량 생산과 복제가 가능한 출판·인쇄 시스템의 도입은 소위 근대문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미디어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관점임. 근대의 문학은 신문과 잡지, 딱지본 등 각각의 미디어적 특성과 결합하며 형성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미디어의 언어표기, 독자전략, 체제변화, 지면배치, 삽화활용, 광고전략 등은 근대소설의 미디어적 특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 장치로 활용함.

▸ 이 책은 '정전(正典)' 중심의 문학사를 넘어서, 근대의 문학, 문단, 문학사의 경계나 그 경계에 놓인 존재들에 주목하고 있음. 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문학이 되지 못했던 경계적 글쓰기, 언론·출판·문단의 경계에서 활동했던 무명의 작가들, 많은 독자들의 선택을 받았지만 문학사 기술에서 배제되었던 대중문학 작품 등이 저자가 주목한 연구의 대상이 됨. 이러한 시도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전(正典)' 중심의 문학사를 반성하고, 근대문학이 놓인 자리를 균형 있게 복원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임. 또한 원본 텍스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방법은 텍스트가 놓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한편, 이 시기 문학을 당대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제가 됨. 이 책은 문학의 경계를 통해 역설적으로 근대문학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

▸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서. 지금까지 근대의 대중소설인 딱지본은 오랫동안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음. 하지만 이 책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딱지본 대중소설의 특질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음. 특히, 시류에 편승한 다수의 실용서적 및 다양한 유형의 딱지본 대중소설을 저술한 철혼 박준표, 직접 출판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문학적 저술을 시도한 남송 송완식, 언론·출판·문단 사이에 위치한 경계인이자 '사회소설' 연작을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에서 실험한 녹동 최연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딱지본 대중소설 작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였음. 이러한 시도는 한국 대중문학의 기원과 형성을 탐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표 3-1>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 목	수주액(천원)	
	최근 1년간(2021.9.1.~2022.8.31.) 실적	비고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3,403,231,554	: 2,870,268,524 : 18,991,000 : 25,698,000 : 25,698,000 : 462,576,030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비고 참조	
참여교수 수	5	

▸ 연구비 수주실적 세부사항

연번	참여교수	과제명	과제번호	과제기간	연구비	사업구분
1		2021학년도 연구기구 사업비(근대한국학연구소)	2021-52-017	2021.03.01.~2023.02.28.	3,000,000	정부
		2021학년도 근대한국학연구소 총서 및 학술지 간행비	2021-62-034	2021.03.01.~2022.02.28.	25,000,000	
		근대한국학의 지적 기반 성찰과 21세기 한국학의 전망	2021-51-0386	2021.07.01.~2022.04.30.	1,308,697,000	
		2021학년도 HK+ 사업비 교비대응	2021-62-0052	2021.07.01.~2022.06.30.	57,083,000	
		2020학년도 HK+ 사업비 교비대응 이월자금	2021-62-0054	2021.07.01.~2022.04.30.	22,961,862	
		제24회 국제학술회의 개최	2021-52-0099	2021.11.26.~2021.11.28.	4,000,000	
		2022학년도 연구기구 사업비	2022-52-0007	2022.03.01.~2023.02.28.	3,000,000	
		2022학년도 근대한국학연구소 총서 및 학술지 간행비	2022-62-0013	2022.03.01.~2023.02.28.	45,000,000	
		근대한국학의 지적 기반 성찰과 21세기 한국학의 전망	2022-51-0207	2022.05.01.~2023.02.28.	1,308,697,000	
		2021학년도 HK+ 사업 교비대응 이월자금	2022-62-0029	2022.05.01.~2023.02.28.	35,746,662	
		2022학년도 HK+ 사업 교비대응	2022-62-0030	2022.05.01.~2023.02.28.	57,083,000	
2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일선잡가(日鮮雜歌)』 연구-문화의 번역과 전이	2021-51-0392	2021.07.01. ~2022.06.30.	18,991,000	정부
3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	2022-51-0307	2022.07.01.~2023.06.30.	25,698,000	정부
4		한국어 이중주어문의 형식문법	2022-51-0305	2022.07.01.~2023.06.30.	25,698,000	정부
5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2021-51-0154	2021.03.01.~2022.02.28	211,970,000	정부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 2021 교비대응자금	2021-62-0029	2021.03.01.~2022.02.28	18,419,070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 2020 이월자금	2021-62-0043	2021.03.01.~2022.02.28	378,750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2022-51-0056	2022.03.01.~2023.02.28	211,970,000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 2022 교비대응 자금	2022-62-0008	2022.03.01.~2023.02.28	19,838,210	

1.2 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연구업적물의 질적 우수성 향상 방안

■ ‘워킹리서치’ 학술 프로그램 운영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HK+ 사업단과 협력하여 공동 세미나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4단계 BK21 참여교수, HK 소속 HK교수 및 HK연구교수가 참가하고 있음. 참여자는 국어학, 국문학(근현대문학 및 고전문학), 영문학 등 다양한 전공 연구자들이 참여해 융·복합적 학술의 장을 열고 있음. 격주로 진행되는 ‘워킹리서치(working research)’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업적물의 질적 우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은 연구논문으로 완성되어 학술지에 등재되는 성과를 만들고 있음.

일시	발표자	발표주제
9월 15일(수)	배정상	『조선신문』 소재 최찬식 소설 연구
12월 22일(수)	김성연	윤동주의 담론, 실증, 현장 연구
1월 26일(수)	고석주	‘국어’과 ‘국문’을 찾아서
2월 23일(수)	한수영	김사량의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에 관한 연구
3월 16일(수)	김형태	근대계몽기 의약 소재 시가의 유형과 표기 방식 연구
3월 30일(수)	배정상	조선문단의 미디어 전략과 문단 권력의 창출
5월 11일(수)	고석주	조선시대 문집, 실록, 어문자료
6월 8일(수)	김성연	냄새의 풍경
7월 20일(수)	노혜경	현공렴의 일선잡가 연구
8월 17일(수)	한수영	몰락/재생의 서사구조와 윤리의 과잉 - 식민지기 전향자의 중독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중심으로

■ 연구지원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연구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함.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구 진행을 위한 근대 한국어문학 도서 및 자료를 제공함.

■ 외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귀중본 학술 자료의 활용

▶ 외부 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귀중본 학술 자료의 활용을 통해 연구업적물의 질적 우수성을 향상시킴. 근대 한국어문학 귀중본 자료를 다수 소장한 외부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2. 주요 성과

■ 학술지 논문게재 논문 8편

① 배정상,「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활동과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 : '사회소설' 『단소』와 『죄악의 씨』를 중심으로」,『대동문화연구』 11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9.

② 배정상, 「『조선신문』 소재 최찬식 소설 연구」,『동방학지』 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1.9.

③ 양정석,「한국어 의문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 이론적 접근」, 배달말 69, 배달말학회, 2021.12.

④ 김성연,「시인 윤동주의 이동하는 신체와 언어적 실천,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방법론」,『현대문학의 연구』, 2022.2.

⑤ 배정상,「백야 이상춘의 신소설 연구」,『한국민족문화』 8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2.3.

⑥ 김성연,「근대 초기 선교사 기록에 담긴 후각 감각을 통해 본 문화번역의 가능성」,『인문과학』, 2022.4.

⑦ 배정상, 「『조선문단』의 미디어 전략과 문단 권력의 창출」,『인문논총』 79집 제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5.

⑧ 노혜경,「현공렴의 『일선잡가』 연구 - 문화의 번역과 전이」,『동양학』 8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22.7.

■ 저서 3편

① 배정상,『근대 미디어와 한국문학의 경계』, 소명출판, 2021. 10.

② 김형태,『속담과 물명의 세계』, 학자원, 2022. 07. 25.

③ 양정석,『한국어 의문 구문과 의도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 이론적 접근』, 한국문화사, 2022. 08.

■ 국내 학술대회 참여

▶ 김성연 : 2021.09.03.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제5회 국내학술대회: 이주의 시대, "지식과 지식의 횡단>에 참석해 <근대 초기 선교사 이주와 후각 경험의 기록: 타자 인식과 공존의 감각>을 발표함.

▶ 김성연 : 2021.10.05.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3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 간행물>에 참석해 <한글과 조선예수교서회의 여성아동보건의학도서에 관한 토론> 발표의 토론자로 참여함.

▶ 김성연 : 2021.10.29. <성균관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대회: 과학 테크놀로지 전쟁의 문학적 표상과 증언>에 참석해 <1차대전의 보고와 파멸된 존재:1930년대 초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조선어 번

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함.

▸ 김성연 : 2021.10.30.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웹 플랫폼의 확산과 콘텐츠의 위기>에 참석해 <글로벌 전시 플랫폼과 문학 콘텐츠의 재편>을 발표함.

▸ 한수영 : 2022.02.16.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미주유럽연구소 제11회 정기학술 세미나 특강>에 참여해 <전후세대와 전후문학 : 이중언어(자) 문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함.

▸ 김형태 : 2022.02.25. <한국 주역학회 동계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 현대시단에 나타난 주역> 발표의 토론자로 참여함.

▸ 한수영 : 2022.05.12. <대산문화재단 주최 탄생 100주년 문인 기념 심포지엄: 폐허의 청년들, 존재와 탐색>에 참석해 <소민주의(小民主義)의 에토스-선우휘의 소설에 나타난 서북인의 문화심리구조>에 대해 토론함.

■ 각종 학술대회 개최

▸ 고석주 : 2021.10.21. <제51회 국내학술대회 : 식민지 시기 지식장의 재편과 조선 연구의 학적 체계화 과정>

▸ 고석주 : 2021.11.27. <제15회 근대한국학포럼 : 식민과 냉전의 경험으로 읽는 근대문학>

▸ 고석주 : 2021.12.21. <제9회 해외학자 초청 포럼 : 북미의 한국학>(백태웅, 하와이주립대학)

▸ 고석주 : 2022.01.19. <제16회 근대한국학포럼 : 중국의 한국학 – 21세기 한국학의 전망>

▸ 고석주 : 2022.05.18. <제17회 근대한국학포럼 : 근대 일본의 조선 유학 연구>

▸ 고석주 : 2022.07.13. <제7회 석학강좌 : 근대한국학의 과제와 전망 – 바깥에서 사유하기 '정체성'의 속박을 넘어>

② 교육연구팀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 (최근 1년(2021.9.1.-2022.8.31.))

1) 저널논문

연번	1	연구자	배정상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활동과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 : '사회소설' 『단소』와 『죄악의 씨』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15, 2021.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본 연구는 1920년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나름의 개성 있는 행보를 보여준 녹동 최연택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시기 서적출판문화의 다층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 ▸ 녹동 최연택은 신문 매체에 수많은 글을 기고한 언론인이자, 출판사를 직접 설립하여 경영한 출판인이었으며, 몇 편의 특색 있는 소설 작품을 남긴 문학인이기도 했음. ▸ 그는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시도했으며, 문창사라는 출판사를 설립 · 운영하며 출판활동을 통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자 했음.			

	▸ 『단소』,『죄악의 씨』 등 ‘사회소설’ 연작을 통해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음. ▸ 경계인 녹동 최연택의 언론 · 출판 및 소설 창작 활동은 식민지 시기 서적출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사례가 되었음.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이 연구는 한 인물의 언론출판활동과 딱지본 대중소설의 저술을 통해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연구성과라고 판단됨.

연번	2	연구자	배정상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조선신문』 소재 최찬식 소설 연구〉, 동방학지 196, 2021.9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이 연구는 『조선신문』 한글판에 수록된 최찬식의 소설 목록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작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최찬식 소설의 특질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음.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최찬식의 필명들을 확정하고, 몇 개의 작품들을 목록에 추가할 수 있었음. 예컨대, ‘청초당’, ‘벽종거사’, ‘태화산인’이 최찬식의 필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강상촌』,『형월』,「여의화」 등을 최찬식의 작품으로 확정할 수 있었음. 또한「세계화」가『도화원』으로,「안성」이『안의성』으로,「경중영」이『룽나도』로 이름을 바꾸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던 사실도 밝힐 수 있었음. 한편,「여의화」,「보쌈」,「비행선」을 발굴하여 최찬식의 작품 목록으로 추가하여 다룬 것도 의미있는 성과임. ▸『조선신문』 소재 최찬식 소설은 대체로 대중독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설 장치와 기법을 고루 활용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도 유의미한 성과임. 예컨대, 『조선신문』에 연재된 최찬식 소설은 한중일 동아시아 서사전통에 기반을 둔 익숙한 이야기의 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음. 또한 ‘실업신문’을 표방한 『조선신문』의 미디어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최찬식 소설이 지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 근대적 ‘자유연애’에 대한 감각을 유포하고, 삼각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일부다처를 제시한 것도 특징적임. 한편, 연애 이야기를 중심에 두되, 범죄, 추리, 모험 등의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시키고, 공간 배경을 세계로 확장시켜 작품의 장르적 요소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 결국, 최찬식은 신소설의 역사적 시효가 만료되어가는 상황에서 신소설이 지닌 대중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 명맥을 이어나갔던 것임을 밝혀냄.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이 연구는 신소설 작가 최찬식의『조선신문』소설 연재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의 미디어 트랙 분야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연구성과라고 판단됨.			

연번	3	연구자	양정석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한국어 의문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이론적 접근, 배달말 69집, 2021년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한국어 의문 구문은 '-니, -냐, -습니까' 등 보통의 의문형어미, '-는지, -느냐, 는가' 등 명사절의 의문형어미, '-느냐고, -더냐고'의 간접인용절 의문형어미, '-나, -을까'의 자문의 의문형어미에 의해서 형성됨. 의문사는 의문사 용법과 불확정 용법을 가지는데, 의문사 용법은 통사구조의 C 범주인 의문형어미와의 호응에 따라 해석됨. 의문사를 양화사의 하나로 기술하되, 표준적 형식의미론의 관행과는 달리, 의문사, 양화사의 논리형태 이동을 가정하지 않고, 의문사의 다양한 통사적 위치에 따라 타입 전이 규칙을 활용하는 가변 타입 접근 방안을 실행했음. 특히 의문형어미가 양상 요소라는 가정과 양상 표현인 명제를 명제들의 집합으로 전환하는 담화화용론적 추론규칙을 통하여 형식의미론적 의문문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함. ▸ 한국어 의문 구문에 대하여 형식의미론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통사구조-의미구조의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연구로는 최초의 연구임. ▸ 가변 타입 접근(flexible types approach) 방법론에 입각한 한국어 양화사 명사구, 한국어 의문사 명사구의 해석 규칙을 제시한 연구로는 최초의 연구임. ▸ 이중주어문의 4가지 모든 유형에 대한 형식의미론적 기술 방법을 제시한 연구로 최초의 연구임.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물임 ▸ 19세기 말 프레게가 창안한 양화-술어논리 체계가 인도유럽어에 대한 적용을 거쳐 동아시아어의 하나인 한국어에까지 적용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새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로서, 향후 한국어 의미론 연구, 특히 학문 후속 세대의 연구를 촉발하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함.				

연번	4	연구자	김성연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시인 윤동주의 이동하는 신체와 언어적 실천,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방법론〉, 현대문학의연구76호, 2022년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이 글을 통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론'의 방법론적 유용성과 합당성을 재검토함. ▸ 윤동주에 관한 상이한 해석과 평가의 원인이 그의 '식민지 학생시인'이라는 특수한 정체성을 집단적 정체성으로 환원시킴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모색함. ▸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그리고 만주라는 역사적 장소를 거친, 윤동주라는 역사적 인물에 관하여 '디아스포라 이론'을 통해 접근할 때의 성취와 한계를 검토함.				

	▸ 작가의 전기적 연구와 문학세계 연구, 그리고 역사적 사료 분석과 담론적 해석 등, 여러 방법론이 각자 수행될 때 벌어지는 문제적 지점을 조명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윤동주라는 시인이자 식민지민, 그리고 문학도지망 학생의 생애와 그의 시세계의 변모와 깊이를 함께 살피고, 서구발생 이론인 디아스포라 이론이 근대 동아시아 식민지 문화를 대상으로 할 때 굴절되는 지점을 밝히고자 함.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대표적 근대 시인인 윤동주의 전기적 삶과 시세계를 아울러 살피고, 연구방법론을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는 "근대한국어문학분야"에 특화된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물임. ▸ 일제 말기에 '조선어'라는 '한글'을 의식적으로 문학의 문자로 선택한 예외적 시인이었던 윤동주의 사례를 그의 발표 지면과 장소와 함께 분석한 본 연구는 '문자, 텍스트, 미디어'를 주된 키워드로 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성과임.

연번	5	연구자	배정상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백야 이상춘의 신소설 연구〉, 한국민족문화 81, 2022.3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이 연구는 국어학자로 알려진 백야 이상춘의 신소설 작가로서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신소설 작가 이상춘이 『매일신보』와 『청춘』의 현상문예에 당선된 특별한 이력이 있다고 정리한 바 있음.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상춘의 이력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 같은 시기 동일한 이름을 사용했던 두 명의 이상춘(李常春)이 존재했음을 처음으로 밝혀냄. 신소설 작가이자 교육자였던 개성의 이상춘과 『매일신보』와 『청춘』의 현상문예 당선자이자 『매일신보』 기자였던 경성의 이상춘은 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각기 다른 인물이었음. ▸ 신소설 작가 이상춘은 개성에서 태어나 한영서원에서 수학했으며, 이러한 경험은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됨. 『박연폭포』와 『서해풍파』는 고향인 개성을 주된 공간배경으로 삼고 이를 핍진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작품 속 무대를 일본과 미국, 더 멀리 남극에까지 확장하고자 했음. 또한 한영서원에서 배운 근대 지식과 기독교 사상, 외국어 등은 작품 속 주제로 형상화 되었음. 한편, 택견 유단자와 매력적인 장애인 여주인공, 조선학과 항해학을 전공하고 남극탐험에 도전한 인물 등 이전의 신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새로운 인물형상을 창조한 것도 중요한 특색임. 이처럼 이상춘과 그가 남긴 신소설은 1910년대 신소설의 다채로운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됨.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이 연구는 1910년대 신소설 작가 이상춘의 삶의 궤적을 통해, 그의 신소설 작품인 『박연폭포』와 『서해풍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시도는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연구성과라고 판단됨.			

연번	6	연구자	김성연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 근대 초기 선교사 기록에 담긴 후각 감각을 통해 본 문화번역의 가능성>, 인문과학124호, 2022년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이 글을 통해 근대 초기 조선의 문화접경지대에서 벌어지던 경험과 인식을 기록한 문서들을 '문화번역'의 관점에서 최초로 본격 조명함. ▸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본격 이주민인 서양인 서교사가 남긴 문서 기록을 통해 인식론적 문자적 문화번역의 지점과 방식을 검토함. ▸ 기독교확산, 일본식민통치, 서구문화유입, 전통의 변형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의 근대 문화를 현장감 있는 감각 경험을 통해 기록한 문헌을 통해 살핌.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근대초기 조선에 체류하며 조선의 문화를 기록한 선교사의 기록물을 본격분석한 본 연구는, 본 교육연구팀이 주력하는 '근대한국어문학' 연구에 부합함. ▸ 문학, 신학, 문화인류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연구 대상과 방법론을 조명하는 탈경계적이고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여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성과물을 양산함. ▸ 문자/텍스트/미디어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후속 학문세대에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유의미한 성과라 판단됨.				

연번	7	연구자	배정상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조선문단』의 미디어 전략과 문단 권력의 창출>, 인문논총 79(2), 2022.5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이 연구는 조선 유일의 '문예전문지'를 표방하며 발행된『조선문단』의 미디어 전략을 분석하고, 이것이 1920년대 문단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광수는『조선문단』을 해 문학의 독자적인 영토를 개척하고자 했으며, 잡지의 지면을 문단 전체에 개방하여 동인지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했음. 또한 다양한 기획을 통해 자신의 문사 담론을 구체화시키는 한편, 현상문예를 통한 작가 추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방인근은 잡지의 실질적인 운영과 편집을 담당하며, 이광수의 기획 의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				

	▸ 특히,『조선문단』은 기존 잡지에서는 찾기 어려운 다양한 미디어 전략 및 기획을 시도하였음. 예컨대, 다양한 '문사' 관련 기획들을 통해 문학 작품 너머에 존재하는 문학 창작 주체의 존재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민중을 이끄는 지사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음. 또한 문학창작과 관련한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물의 작가적 면모를 통해 문사가 지닌 문학창작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음. 이러한 시도는 문학을 지망하는 독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었으며, 특정 작가들에게 문사로서의 권위와 아우라를 부여하는 방편이 되기도 했음. ▸『조선문단』의 현상문예는 새롭게 시도되는 '문예전문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미디어 전략이 되었음.『조선문단』의 현상문예는 문단을 대표하는 이광수, 주요한, 전영택을 고선자로 내세우고, 상금 대신 신진작가로의 승인과 추천을 통해 독자들을 유인하고자 했음. 하지만 우수한 신진작가의 등용을 통해 조선 문단의 건설을 표방한『조선문단』의 현상문예는 안정적인 독자 확보는 물론 기존 작가들의 문단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음. 이를 통해,『조선문단』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문예전문지가 되었고,『조선문단』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은 당대의 '문사'로 기억될 수 있었음.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이 연구는 잡지『조선문단』을 미디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 한국어문학 분야에 특화된 전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에 정확히 부합하는 연구성과라고 판단됨.

연번	8	연구자	노혜경	실적구분	저널논문
대표연구 업적물		현공렴의『일선잡가(日鮮雜歌)』 연구-문화의 번역과 전이/동양학(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88호, 2022.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이 논문은 현공렴의 이중언어 저술『일선잡가』의 특질을 연구하고 그 문화사적 의미를 논의한 것임.『일선잡가』는 근대시기 가장 이른 시점에 출간된 와카집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당시에 출간된 여타 잡가집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지님.『일선잡가』의 다양한 표기 형태는 이중언어 표기 방식이 시대적 흐름 및 독자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또한, 조선어 번역문 표기에서 '직역'과 '의역'으로 나눈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의 일본어문을 이처럼 '직역'과 '의역'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것은 여기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사례임.『일선잡가』에 실린 작품의 내용이 이른바 일본의 정신을 표현하거나 천황의 치세를 칭송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공렴은 일본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의 내용을 변화시키기도 했음.『일선잡가』는 식민지 시기 문화의 번역과 전이 현상 및 그에 따른 저술가의 방법론적 고뇌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임.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이 논문은 근대 시기의 이중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언어, 표기, 문화의 번역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이 지향하는 근대 한국어문학 특성화에 합치하는 연구성과라 볼 수 있음.			

2) 저서

연번	1	연구자	배정상	실적구분	저서
대표연구 업적물		<근대 미디어와 한국문학의 경계>, 소명출판, 2021. 10.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근대문학에 접속하는 또 하나의 코드로 미디어를 제시하고 있음 ▸ 근대 문학이 새롭게 형성된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이루어졌음을 근대 시기 원문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함. ▸ ‘정전(正典)’ 중심의 문학사를 넘어서, 근대의 문학, 문단, 문학사의 경계나 그 경계에 놓인 존재들에 주목하고 있음. ▸ 지금까지 근대의 대중소설인 딱지본은 오랫동안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음. 하지만 이 책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으로 시야를 확장하여 딱지본 대중소설의 특질과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음. 특히, 시류에 편승한 다수의 실용서적 및 다양한 유형의 딱지본 대중소설을 저술한 철혼 박준표, 직접 출판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문학적 저술을 시도한 남송 송완식, 언론・출판・문단 사이에 위치한 경계인이자 ‘사회소설’ 연작을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에서 실험한 녹동 최연택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딱지본 대중소설 작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복원하였음. 이러한 시도는 한국 대중문학의 기원과 형성을 탐색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22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이 책은 근대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동안 주류 문단에 편입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학 양식을 두루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아젠다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연번	2	연구자	김형태	실적구분	저서
대표연구 업적물		『속담과 물명의 세계』, 학자원, 2022.07.25.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제1부는『이담속찬(耳談續纂)』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이 저술은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중국 명대(明代) 왕동궤(王同軌, 1535~1620)가 엮은 『이담』에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을 증보하여 1820년에 편찬한 속담집임. ▸ 제2부는『물명고(物名考)』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 풀이와 설명을 수록한 것임. 이 책은 유희(柳僖, 1773~1837)가 여러 가지 사물의 이름과 관련 내용을 한글과 한문으로 풀이하여 1820년경에 편찬한 일종의 유서(類書: 백과사전)임. ▸ 이 저술은 국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 어휘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음. 또한 문학적으로는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의 습득을 통해 스토리			

	텔링의 소재로 활용하거나 다양한 콘텐츠로 승화시킬 수 있는 원천인 텍스트임.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본 연구성과는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의 공동연구 작업물로 본 교육연구팀이 기획단계에서 의도한 교육・연구 효과를 잘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성과임. ▸ 향후 관련 미디어(회화, 조형물)에 관한 연구도 융・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개발 가능성도 충분하며, 관련 아카이브 구성에 기여함은 물론 논문이나 저술 등 관련 연구성과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음.

연번	3	연구자	양정석	실적구분	저서
대표연구 업적물		『한국어 의문 구문과 의도 구문의 형식문법: 양상 이론적 접근』, 한국문화사, 2022.08.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개 요		▸ 형식문법 연구는 프레게가 창안한 양화, 술어논리 체계를 바탕으로 인간 언어의 온갖 국면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이 경우 의문 구문, 즉 명령문・청유문・약속문은 주요 난제가 됨 ▸ 한국어 의문 구문, 의도 구문에 대한 형식문법적 기술 작업은 프레게 기획의 완성에 기여할 것임 ▸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 종결어미와 이들을 핵심 요소로 가지는 문장을 양상 의미 형식으로 기술하여 합성성 원리를 준수하는 통사-의미 합성의 체계를 수립함 ▸ 이는 한국어 문법 연구 최초임 ▸ 이를 통해 한국어 양화사, 즉 양화 명사구와 양화 관형사의 통사론과 의미론 전반적 체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음.			
교육연구팀 비전・목표와 부합성		▸ 한국어 문법 연구 최초로 통사-의미 합성 체계를 수립한 연구로서 큰 의의를 지님			

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MOU 체결

▸ 김성연 참여교수가 진행한 <문화기획과 근대문화> 강의에서 인구 소멸 지역인 태백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홍보 영상 기획안을 생성했고, 참여대학원생 최석열이 조교로 참여해 근대화의 대표 장소인 '탄광'을 배경으로 한 문학 및 예술작품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생성이라는 성과를 이룸.

▸ 본 사업팀에서는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 함창호 팀장을 초빙해 2022년 3월 2회에 걸쳐 <인큐베이팅 세미나>를 실시함. 상술한 <문화기획과 근대문화>와도 연계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협약식 체결이 추진됨.

▸ 2022년 8월 1일 국어국문학과 학과장(김형태)과 참여교수(김성연)가 부총장에게 MOU 경과를 보고함.

▸ 2022년 8월 9일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4단계 BK21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과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 본사 5층 중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체결함.

▸ 진행 경과

2022년 3월 ~ 6월	참여교수 김성연 <문화기획과 근대문화> 강의 진행 참여대학원생 최석열 조교 참여
7월	수강 학생 음원 제작
7월 13일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주도로 대학 강의실 메이킹 필름 촬영
7월 19일	참여교수 광고기획사에서 메이킹 필름 촬영
8월 1일	부총장 상담 : 학과장, 참여교수 MOU 경과 보고
8월 10일	<인구소멸 위험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진행
9월 7~9일	7~9일 태백 현지 촬영
9월 28일	한국관광공사 공식 유튜브 체널에 4편의 태백 홍보 동영상 온에어

▸ 이번 협약식은 근대화의 대표 장소인 탄광을 배경으로 한 문학 및 예술작품을 토대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콘텐츠를 직접 생성했으며,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님.

▸ 본 사업팀의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이 주도해 이론과 현장이 연계된 문화기획과 문화콘텐츠 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지역 사회 공헌 사업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는 이 협약식을 시발점으로 삼아 한국관광공사와 미래캠퍼스 간 여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에 본 사업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의가 큼.

▸ 본 사업팀이 추구하는 문화콘텐츠 기획 및 제작 분야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앞으로도 여러 성과가 기대됨.

▸ 추후 계획

2022-2학기~2023-1학기: "지역거점 공기업 연계, 지역사회연계, 사회문제해결참여, 국제적 문화기획컨텐츠 기획 실무" 의의가 있는 교육 계획

①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이 수강하는 대학원 과목 <한국근대대중소설연구>에서 MOU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의 문화컨텐츠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

② 해당 학생들의 참여로 한국의 고전문학인 <관동별곡>을 토대로 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강원지역 홍보영상 기획안을 작성할 예정. 관련하여 본 교육연구팀 참여대학원생들 학술현장학습 계획

③ 2022-2학기 대학원 수업 과제 결과물을 2023-1학기 학부 강의에 소개하여 학문 후속세대에게 확산하고 우수한 문화기획 트랙 대학원생을 유치함.

④ 2023년 상반기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상기한 학생 기획안을 토대로 3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관광공사공식 유튜브 채널에 온에어, 해외용으로 영문 버전도 제작.

■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문학 특강

▸ 지역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 :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총 4회에 걸쳐 배정상 교수가 대중강연을 시행하였음.

① 07월 07일 : 신소설과 근대적 여성 주체의 탄생

② 07월 14일 : 한일강제 병합과 소설의 대중화 전략

③ 07월 21일 :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와 딱지본 대중소설

④ 07월 28일 : 강명화 정사 사건의 소설화 양상과 의미

근대 시기의 문학과 당대 시대상 및 사회적 사건을 소재로 대중이 알기 쉽게 흥미로운 이야기와 자료를 활용해 근대 시기 한국문학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함. 배정상 교수는 1차년도에도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앞으로도 근대 시기 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

▸ 지역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 : <제18회 근현대 인물 열전 - 근대 조선의 선교사들>에서 본 사업팀 김성연 교수가 "선교사의 문학 번역과 문화번역" 대중강연을 실시하였음.

근대 시기 조선에 머물렀던 선교사의 문학 번역 작업과 문화번역에 관한 흥미로운 주제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 번역에 관한 지식을 전달 및 전파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교양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음.

2.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비대면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지역 사회를 위한 시민강좌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또한 지역 사업 문

제 해결의 직접적인 방안을 생성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식을 체결했다는 성과도 거둠. 본 사업팀이 주도한 협약식 체결은 학문의 장인 대학에서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관여하는 실제 활동으로 연계했다는 의의를 지님.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3. 참여교수의 연구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 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1. 참여교수의 국제적 학술 활동 참여 실적

■ 국제 학술대회 참여

▸ 김성연 : 2021.11.16. <중국의 한국문학연구 30년 국제학술회의: 경계 접촉 지대와 장소의 탄생> 참여

▸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시인 윤동주의 이동하는 신체와 언어적 실천,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방법론>을 발표함.

▸ 김형태 : 2022.05.06. <조선통신사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참여

1. 일시: 2022년 5월 6일(금) 13:00
2. 장소: 부산 동구 부산유라시아플랫폼(부산역 앞) A동 104호
3. 주최: 부산광역시, (재)부산문화재단
4. 주관: 조선통신사학회
5. 학술 심포지엄 세부일정

순서	시간	일정 및 발표내용	사회 및 토론
제1부 개회식 및 정기총회	13:00~13:30	회원등록	
	13:30~13:45	개회식	사회 이주영(동명대)
제2부 학술발표	주제발표 ① 13:50~14:20	1636년 能書官 全粲의 『海槎日記』 연구 구지현(선문대)	토론 정은영(카톨릭대)
	주제발표 ② 14:25~14:55	조선통신사의 바다-이키[壱岐]를 중심으로 윤지혜(세이난가쿠인대)	토론 김형태(연세대)
	14:55~15:10	중간 휴식	
	주제발표 ③ 15:10~15:40	18세기 菊屋板『朝鮮人行列次第』에 대한 고찰 김종민(문화재청)	토론 김정선(동아대)
	주제발표 ④ 15:45~16:15	조선통신사와 후쿠오카번사[福岡藩士], 고쿠라번사[小倉藩士]의 교류 모리토모 다카시(守友隆, 키타큐슈시립자연사역사박물관)	토론 정성일(광주여대)
제3부 종합토론	16:30~17:50	발표자 토론자 일동	좌장 한태문(부산대)
제4부 정기총회	17:50~18:00	정기총회 및 폐회	

6. 성과 및 기대효과

- 2022년 5월 6일에 개최된 조선통신사학회 학술대회는 ‘조선통신사와 한·일 문화교류’를 주제로 ‘2022년 조선통신사 국제학술 심포지엄’으로 개최됨.
- 본 교육연구팀의 참여교수 김형태가 본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참여함.
- 한일 양국 학자 간의 학술적 교류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향후 조선통신사 문화 교류

를 통한 근대 한국어문학 인재 양성과 교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반을 마련함.

- 이번 학술대회 참가 성과는 다음과 같음.

① 임진왜란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파견한 조선과 일본의 선린우호를 위한 대일 외교 사절단이었으며, 양국문화 교류의 공식 통로였던 조선통신사가 지닌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위상과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됨.

② 한·일 문화교류의 원류로 일컬어지는 조선통신사 연구를 되돌아보고자 하는 시도 및 조선통신사 연구의 국제화를 논함. 이를 통해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반성적 시도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음.

③ 조선 후기 연구, 더 나아가 문화 중심의 학제 간 연구의 정황을 한·일 학계가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됨.

④ 문학, 역사, 미술 등 한·일 문화의 다양한 갈래에 구현된 문학적 상상력과 그 교류의 문제를 살피고, 조선통신사 문화 교류의 전통이 현대화·세계화되어 온 양상을 고찰하며,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함.

⑤ 분야별 전문 연구자를 비롯한 국내외의 조선통신사 연구자들이 문학, 역사, 미술 등을 수용·번역·연구한 바를 살피고, 역사·문화적 토양이 다른 시각에서 이들 갈래가 세계문학으로서 수용되고 재창작될 가능성과 조선통신사 문화유산 세계화의 중요한 관문이 될 번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함.

⑥ 조선통신사 문학 세계화의 현재적 위치와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

- ‘2022 조선통신사 국제학술 심포지엄’은 조선통신사 연구가 지니는 보편적 가치와 위상을 세계문학적 패러다임 속에서 조망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임.

- 향후 이러한 과제가 창출해야 할 성과와 기대효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층위로 분류될 수 있음.

① 세계문학 속의 조선통신사 문학 연구 패러다임의 재정립. 19세기 전반 서구에서 발상한 세계문학의 개념은 코스모폴리탄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각국에서 발간된 세계문학의 정전은 다분히 근대 유럽의 작품들 위주로 선정되는 데 그치고 말았음.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나 다문화주의, 해체론의 등장은 더 이상 초월적인 유럽적 보편주의로써 세계문학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렇듯 변화된 조건에서 세계문학의 체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것이 ‘조선통신사와 한·일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본 연구팀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학술적 주제 가운데 하나임.

② 조선통신사 문화 연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인식의 확대임. 프랑스식 비교문학 방법론 유입으로 우리는 우월한 원천으로부터의 영향관계를 입증하면서 보편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음. 이후 우리 문화의 특수성이 곧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음. 이는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수적 문화로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자가당착적 논리에 빠질 수도 있음. 우리의 지역적 정체성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전지구적 기동성과 시시각각으로 조우함. 조선통신사 문화 연구의 특수성은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과 접촉 및 연대하는 동역학적 과정에서 보편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임. 조선통신사 중심의 문화 교류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인식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근대 한국어문학과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본 교육연구팀 학술 목표 중 하나임.

③ 조선통신사 연구의 통섭적 연구 방법론 확보 및 기획임. 기존에 시도되었던 조선

통신사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영향 관계에 놓여있는 주변 국가와 해당 민족의 문화 양식과의 비교연구 및 이러한 영향 관계를 넘어 교류의 차원에서 서구 및 제3세계 국가들의 문화 양식과의 다양한 통섭적 비교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임. 이를 통해 조선통신사에 대한 종래의 단선적인 비교문학적 틀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 연구 시각을 개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근대 한국어문학의 정체성도 더 명확해질 수 있을 것임.

▸ 본 교육연구팀은 한국 근대어문학 관련 학회에 다양한 방식의 참여와 학술적 활동을 수행함. 이를 통해 최근까지 도출된 학술적 성과와 최신 정보를 교육의 장에서 학습자들과 가장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팀 내부 담론장 형성 기획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음. 나아가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단순히 과거의 문학 유산만 굳건히 지키는 학술적 편협성에서 탈피하여 대학원생들이 학술적 가치가 높은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근대 한국어문학 관련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도출함으로써 근대 한국어문학 중심의 참신하고도 강건한 우리 문학사와 문화사의 형성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소임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함.

②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1.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실적

■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 2022년 7월 29일 본 사업팀이 주최한 "2022 하계 BK21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미국(스탠포드 대학교, 노스웨턴 대학교), 일본(세이난가쿠인 대학교), 중국(사천외국어대학교, 강서사범대학교, UN 대학교) 소재 대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학술적 교류를 진행함.

▸ 외국 대학 및 연구자와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참여대학원생의 학문적 사고 확장 및 인적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했음.

▸ 지속적으로 외국 대학 및 연구자와의 인적·학문적 네트워크 교류 및 확장에 힘쓸 계획임.

2. 주요 성과

■ 국제학술대회 개최 : 2022년 7월 29일 <2022 하계 BK21 국제학술대회> 개최함. 4개국 24명의 발표·토론자가 모여 열띤 학문적 논의를 펼침.

■ 해외 동문 교수 멘토링 세미나 개최 : 2021년 11월 4일 강서사범대학교 임문연 교수

■ 해외 연구자 저서 번역 작업 : 노혜경, <일본어 소설 및 매체 연구(가제)> 번역 작업 진행. 호테이 토시히로(와세다 대학 국제교양학부)의 저서를 번역하고 있음. 호테이 토시히로의 저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로 창작을 했던 조선인 작가들의 작품, 즉 이중언어 작품을 새롭게 발굴하여 소개하고 그 문학적 가치를 논하고 있음. 김사량, 한설야, 이무영, 정지용 등이 주요 논의 대상임. 그 외에 <국민신보>, <조선신문>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매체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작업도 이 책의 큰 줄기임. 이 책은 근대 시기 이중언어 문제 및 매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의 근대한국어문학 특성화에 합치하는 연구 성과면서 동시에 국내 한국학 연구자에게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3.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 해외 대학과의 연구자 교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진행이 어려웠음.

■ 본 교육연구팀에는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음. 이를 고려해 중국 대학에 재직 중인 동문 교수를 섭외해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해외 동문 교수 멘토링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 현시점에서 적절한 운영이었다고 생각함. 해외 재직 중인 동문 교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이러한 일환으로 남경대학, 남경사범대학 등과 교류 협력 체결을 추진 중임. 이후 더 다양한 연구자 교류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함.

■ 2022년 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외 연구자와의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음.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미국, 일본, 중국의 미디어, 텍스트, 언어 영역 전공자를 초빙함으로써 여러 전공 분야의 전문가와 인적·학문적 교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음.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다양한 교류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Ⅳ 교육연구팀 자체평가 결과

■ 근대한국어문학 미래인재교육연구팀 자체평가회의 결과 요약

▶ 학술연구자 트랙과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의 구성 및 비전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함

▶ 교육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는 충실하게 구성했고, 목표 달성도 충실함.

▶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참여대학원생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

■ 자체평가회의 평가위원 종합의견 발췌본(자체평가보고서 평가표 원본은 증빙자료에 첨부함) - 가나다순

평가위원 :
1. 대학원생 인력 충원을 위하여 학부생 육성 및 특성화 교육 사업 홍보를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2. 대학원생 실적 강화를 위하여 교수자들이 일대일 상담 및 동행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3.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의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가위원 :
교육연구팀의 구성 및 비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재 육성 방향을 '학술연구자' 트랙과 '문화기획 및 문화콘텐츠 개발자' 트랙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춰 교육 과정을 재설계하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해 왔음. 대학원 학생들이 새로운 연구 주제나 영역, 다양한 진로 등에 대해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교육과 연구를 연계한 시스템이 2트랙 모두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놓기 시작했다고 판단되며, 대학과 지역 사회 간 '학역(學域)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도 결과가 기대됨. 다만 입지 조건 등 때문에 우수한 한국인/외국인 대학원생의 확보는 여전한 과제인 것 같음. 우수 학생 확보나 미래의 사회적 수요를 고려했을 때, 문화기획 및 문화 콘텐츠 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를 위해 3차년도에는 문화 기획과 콘텐츠 개발의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특성화, 전문화할 구상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됨.

평가위원 :
'교육연구팀 구성과 비전 및 목표' 등이 매우 우수하고,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과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과 신진연구인력 운용과 참여교수의 교육역량과 교육의 국제화 전략 등 '교육역량' 실행과 성과도 우수하지만, 대학원생 연구역량의 적극적 향상 방안과 참여교수 연구역량의 향후 보완이 필요함.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은 우수하지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경험을 살려서 연구의 국제화 현황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현재 팬데믹 상황이 진정세를 보이는 만큼, 연구의 국제화 현황은 향후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함. 전체적으로 우수한 사업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현 상황에서 앞으로 사업 진행 시의 보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대학원 진학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 교수별 LAB 실의 활발한 운영 필요: 취업 관련 홍보를 겸하여 대학원 진학 유도 필요 2) 학부생을 대상으로 각 교수의 연구영역 공개 필요 3) 3·4학년은 물론 1·2학년부터 대학원 진학 유도 필요 2. 대학원 재학생들의 연구 업적(논문) 제고 방안 모색 필요 1) 현재 계획과 진행 중인 양질의 프로그램 활성화 및 시행 필요

2) 일본・중국・미국 등의 대학 및 연구자, 대학원생들과의 교류 추진 필요
3. 참여교수 연구성과 보완 및 제고 필요
4. 학과 관련분야에 대한 취업률 제고 필요: 로드맵 관련 데이터 정리 및 제시 필요
5. 교수별 연구비 수주 관련 내용 구체화 필요
1) 액수뿐만 아니라 구체적 내용 명시 필요
2) MTL(미디어・텍스트・언어)과 관련되게 각각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

평가위원 :

1.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했음
2. 대학원 학생들의 논문, 구두 발표와 같은 가시적인 실적이 부족함

평가위원 :

교육연구팀의 뚜렷한 연구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서 연구팀을 운영하였고, 모든 성과들이 교육연구팀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음. 특히 참여 교수님들이 규모 있는 다양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임
보완하면 좋을 사항은 원 계획서에 목표한 항목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간단한 표 등으로 보여주면 좋겠음. 추가로 연구비 리스트에서 연구비이월금액 등은 나중에 중간보고서 작성할 때 계산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구비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좋을 것 같음.

평가위원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은 훌륭하지만, 그에 비해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효과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의 계획 부분을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위원 :

‘교육연구팀의 구성, 비전 및 목표’는 본 사업단의 주어진 인적 구성을 활용하여 충실하게 구성하였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및 성과도 비교적 계획한 대로 충실히 달성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교육역량’ 부분에서 ‘대학원생 연구역량’은 계획한 바에 비해 다소 미흡하지만, 현재 지도 중인 학생들이 학술지에 논문 투고 중이어서, 곧 더 많은 연구성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수대학원생 확보’ 부분에서 대학원생 신규 진입이 적은 문제, 그리고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고학기 대학원생 숫자가 적은 점 등은 교육연구팀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교육의 국제화 전략’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1차연도에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나, 2차년도에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역량’ 부분에서,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은 계획에 따른 달성 정도가 비교적 충실하다고 판단합니다. ‘연구의 국제화 현황’은, 역시 ‘교육의 국제화 전략’과 같은 이유, 즉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부분으로써,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방안이 요망된다고 판단합니다.

평가위원 :

- 본 사업단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실제 운용 상황 등은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단의 교육연구팀 구성에 있어, 학과 소속 전체 교수(7명) 및 신진연구인력(1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단 상대적으로 지방 소재 대학 사업단의 공통된 문제 상황일 수 있는 참여대학원생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임(현재 9명)
- 특히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에 있어, 우수대학원생의 확보를 위한 보다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고, 본 사업의 2차년도임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원생의 취(창)업을 위한 실질적 계획 수립이 요청됨.(우수 대학원생의 확보 계획으로1) 학부-대학원 연계과정 강화, 2) 대학원 MTL 랩과 연계한 멘토링 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3) 학위논문 대체 실적 인적을 통한 유연 학위제의 도입, 4)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을 기술하였는데, 구체적이고 실제 운영 가능한 방향으로 기술 요청)
- 현재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은 교육과 연구의 연계 시스템 강화, 강의 평가시스템의 개편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참여 대학원생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과목 개설이 요청됨. 또한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성과 도출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외국 유학생의 경우, 자국 학술지 논문게재를 통해 연구성과 목표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 검토 요청)
- 연구역량에 있어서, 참여교수의 사업비(연구비) 수주실적은 매우 우수함. 2023년도 상반기 중간평가 준비를 위해, 2차년도 참여교수 7인의 학술지 논문게재 8편, 단독 저서 3편은 타 사업단과의 상대 평가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의 MOU 체결이 차기 연도 이후 실질적 성과로 구현될 수 있는 계획 수립에 대한 상세한 추가 기술 필요.
- 연구의 국제화 현황에서 수행 성과 분석 및 보완점 항목에, 기 계획 중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교육의 국제화 전략,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및 대학원생의 취(창)업 등의 항목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종합적 전략 설정이 요청됨.

평가위원 :

1. 교육연구팀의 구성 및 목표와 비전 부분은 대체로 우수함.
2. (1) 교육역량 부문에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부문을 제외한 여타의 부문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2)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은 짧은 시간 내에 획기적인 발전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양적 지표가 높지는 않으나 산출된 성과의 질적 우수성은 충분히 평가할 만함.
(3)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못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평가받을 만함.

3. (1)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2) 특히, 원주의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학부 및 대학원 차원에서 협업을 진행하기로 한 점, 수업 및 연구성과를 기관과 공유하며 선순환하기로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됨.
(3) 연구의 국제화 부문은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음.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대면 활동을 통한 국제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망됨.
4.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의 구성에서 외국인 유학생(중국인)의 숫자가 매우 많은 부분을 불리한 조건으로 산정하지 않고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연구성과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를 얻기는 어렵더라도, 이 유학생들을 잘 교육시킴으로써 이들이 한국 및 자신들의 모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 그리고 한국문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비교과 과정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